1957. 10

《조 각》…· 지원군과 소년들

◇

앞표지 : 《옛' 이야기》 ……………… 강 문흡 촬영

소년단 1957년 10호 내용

자랑찬 평양

윤 복진 시
리 조영 곡

빠르지 않게

1 먼동이 트네 — 아침해가 비치네 —
2 밝은해 솟네 — 아침해'빛 비치네 —

(보통 속도로)

맑고푸른 대 동강 소리 치며 노래 하 네
높은새집 처새 들도 우리 평양 노래 하 네

모란봉을 감돌아 노래 하 네 노래 하 네
일어서는 영웅도시 노래 하 네 노래 하 네

아 — — — 언제나 아름다운 모 — 란봉
아 — — — 언제나 자 — 랑 찬 우리평양

모란봉 저꾸 른 모란 봉 저꾸 른 모란봉
우리평양 오늘 은 민주서 울 민주 의 서 — 울

진진세월 비바람 에 하늘높이 솟 아
밝은해와 더 — 부 러 길이길이 빛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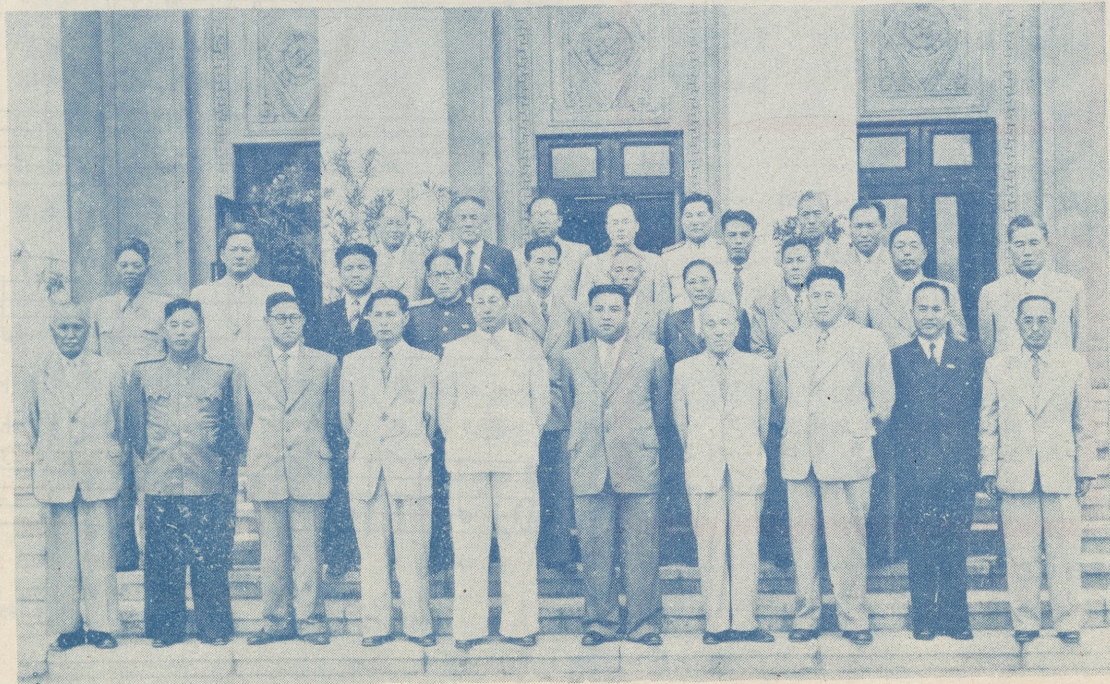
있 구 나 조상의 뜻처럼 솟아있구 나
리 — 라 억만년 가도록 빛 — 나리 라

(ㄱ 65856)

김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공화국 정부 만세!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는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공화국 새 내각이 조직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수상	김일성	화학 공업상	리천호
부수상	김일	농업상	한전종
부수상	홍명희	전기상	김두삼
부수상	정일룡	경공업상	문만욱
부수상	남일	수산상	주황섭
부수상	박의완	교통상	김회일
부수상	정준택	건설 건재 공업상	최재하
민족 보위상	김광협	재정상	리주연
내무상	방학세	대내외 상업상	진반수
외무상	남일	체신상	고준택
사법상	허정숙	교육 문화상	한설야
국가 검열상	박문규	보건상	리병남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리종옥	로동상	김응기
국가 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의완	지방 경리상	정성언
금속 공업상	강영창	무임소상	김달현
기계 공업상	정일룡	무임소상	홍기황
석탄 공업상	허성택		

◇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조직한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새 내각 성원들 ◇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는 최 용건 동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선거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위원장	최용건	위원	리만규
부위원장	리극로	위원	리송운
부위원장	현칠종	위원	한상두
부위원장	김원봉	위원	김창덕
서기장	강량욱	위원	정로식
위원	박정애	위원	김천해
위원	강진건	위원	하앙천
위원	성주식	위원	장해우
위원	김병제	위원	계응상
위원	원홍구	위원	리면상
		위원	송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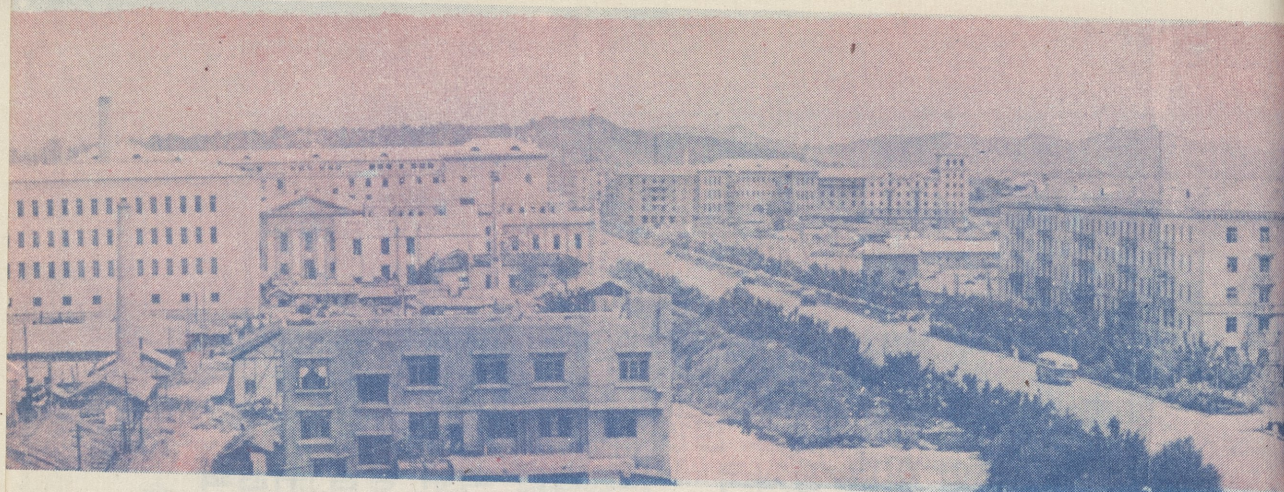
공화국 각지 인민들은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1차 회의 결정을 한결같이 지지하면서 이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수상의 연설을 받들고 증산과 절약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서고 있다

◇

◇

사진은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1차 회의 결정을 지지 환영하는 평양 고무 공장 종업원들의 군중 집회 (상)와 평양 방직 공장 로동자들의 집회 (하)

◇

◇지금의 평양시의 일부◇ (쓰딸린 거리)

평양시의 자랑스러운 력사

평양!

정답게 들리는 이 이름은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다.

평양은 오랜 력사를 자랑한다. 평양에는 원시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 평양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427년에 수도를 환도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때로부터 크게 발전하였다.

금년 10월 15일로 평양시는 창건 1530주년을 맞는다.

고구려의 수도로 있을 때의 평양성의 인구는 120만까지 되였었다. 이 것은 그 때의 평양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큰 수도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금도 이 옛자취들을 더듬어 볼 수 있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평양은 먼 옛날부터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을 지킨 인민들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지니고 있다.

612년 수나라의 침략군 113만이 쳐들어 왔을 때, 정예 부대 30만을 평양성 밖 30리까지 끌어 들여서 몰살시킨 평양성 인민들과 을지 문덕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의 투쟁은 평양시의 자랑스러운 투쟁 력사의 첫페지를 차지한다. 이 때 수나라 수군 4만명도 평양성까지 끌어 들여서 몰살시켰다. 이리하여 평양성은 조국과 향토를 영웅적으로 싸워 지킨 자랑의 도시로 되였으며 항상 인민들을 승리에로 불러 일으켰다.

그 후 당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에도 평양성 인민들은 그들을 물리쳤다. 특히 신라와 당나라의 침략으로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도 평양성 인민들을 중심으로 한 항전군은 서북 인민들과 함께 9년간이나 싸워서 668년에 당나라 주둔군 사령부인 《안동 도호부》를 없애 버리였다.

고려 시대에 평양은 서경(서쪽의 서울)이라고 불리우면서 고려의 제2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서북의 거란과 동북의 녀진족의 침입을 막아 내기 위한 요새의 도시로 더욱 확장되였다.

이리하여 평양은 993년부터 1019년까지의 사이에 여러 차례 우리 나라에 쳐들어온 거란 침략군을 그 때마다 물리쳤다. 1010년에 거란 왕이 40만 군대를 거느리고 평양성을 포위했을 때 지배 계급은 적들 앞에 항복하려는 기색을 보이였으나 평양성의 애국적 인민들은 조 원 장군의 지휘 밑에 용감히 싸워 적을 무찔러 버렸다. 이렇게 평양을 튼튼히 지켰기 때문에 1018년에 거란 침략군은 또다시 쳐들어 왔으나 평양성을 피해 다녔으며 그러다가 강 감찬 장군에게 몰살 당하고 말았다.

대동문(평양성의 동문)은 옛날 외래 침략을 방어하는 중요한 요새였다

이 투쟁 업적들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 있다.

평양은 12세기에 이르러서는 지배 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농민 폭동의 중심지였으며 16세기의 임진 조국 전쟁 시기에는 왜군을 무찔러 용감히 싸운 성새로 이름 높았다.

평양 인민들이 이룩한 투쟁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지금부터 91년 전인 1866년에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 들어온 미국 강도선 샤만호를 양각도 아래 피암도에서 격파한 일, 또 3.1 운동과 광주 학생 운동 때의 투쟁이며 1923년 평양 양말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시위, 1930년 평양 고무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시위 등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투쟁, 이 모두가 평양 인민들의 자랑으로 되고 있다.

쏘련 군대의 힘으로 8.15 해방을 맞이한 후 평양은 참된 인민의 도시로, 민주 수도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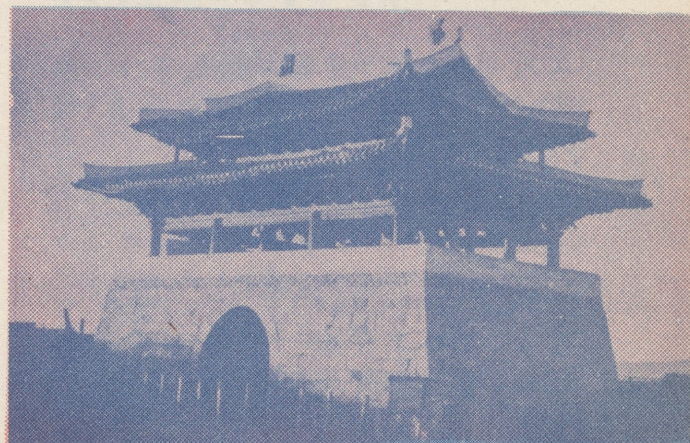
민주 수도 평양은 지금 영웅 나라 영웅 도시로, 세계 인민들로부터 영광스럽게 불리우고 있다.

오늘 평양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웅장하게 건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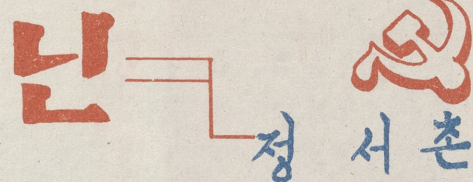
평양성을 지켜 싸운 인민들의 투쟁 력사가 깃들어 있는 올밀대 ➡

◇

《샤만호》에서 로획한 포 ⬇

보통문(평양성의 서문)에는 임진 조국 전쟁 때 남문으로 공격하는 김 응서 장군과 더불어 싸운 명 나라 응원군의 업적도 깃들어 있다 ⬇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가 있는 민주 수도 평양은 전체 조선 인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평양을 끝없이 사랑한다.

레 닌

정 서 촌

함박 눈이 펄펄 나리는
지난 해 겨울 날.
모스크바 붉은 광장 우에
나는 오래 오래 서 있었다.

내 앞에는 레닌 묘까지
수 많은 사람들 줄 지어 섰고.
뒤를 돌아 보면 더욱 더 아득히
언덕을 나려 다시 성벽을 에돌아
사람들은 눈 속에 서 있었다.

크레믈리 종탑의 시계 바늘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한 바퀴
를 돌고
그리고도 이십분이 지난 다음
나는 레닌묘 문안으로 들어섰다.

그처럼 보고 싶던 레닌.
레닌 선생 앞에 가까이 섰을 때
아 나는 이 때처럼
내 가슴 높이 뜀을 기억하지
못한다.

마음 속에 두고 두고 간직한
하고 싶은 말 하두 많았건만
어떻게 말하랴
눈 시울만 자꾸 뜨거워졌다.

두 눈을 감으시고 잠잠히
유리관에 누우신 레닌 선생
바로 이 분이 짜리를 부시고
로시야 땅 우에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게 하
였다.

이 분이 높이 드신 붉은 기'발
모든 지구 우에 물'결쳐 흐
르고
이 분이 길러 내인 아들 딸들이
행복한 우리 길 열어 주었다.

그렇다 지금 책상 머리에 앉아
책장을 펼치는 아이들아
만일 레닌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자유롭게
우리 나라 글을 배울 수 있었
으랴.

지금 이 시각 이 순간에도
비둘기 날아 앉는 붉은 광장엔
수많은 사람들 줄지어 섰으
리라.
씨리야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
도…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도
이제
그 사람들 속에 서게 되리라.
기사가 되여, 건축가가 되여,
레닌 선생을 만나게 되리라.

아 버 지 와 딸

◇ 맹 정 원 ◇

자일 마을에도 풍년이 들었다.

가없이 넓은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어 금빛으로 파도친다.

《아버지 이 벼알 좀 보세요, 참 소담하지요!》.

《정말 풍년이다. 금년엔 아마 작년보다는 매 로력당 한길로 쯤은 더 차례질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진 괘니 조합을 떠나려고 했었지요?》.

어린 딸의 이 말에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그저 먼 벌판만을 물끄럼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 ※

얼마 전에 있은 일이다.

뗑뗑! 뗑뗑! 조합의 아침 종이 울린지도 펴그나 지났으나 추옥이 아버지는 담배를 풀썩 풀썩 피우며 바깥만 내다 보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일 안 나가세요?》.

아버지는 군 입맛을 쩝쩝 다시며 아무 대'구도 하지 않았다. 이 때 마침 설거질을 하시던 어머니가 들어 서며《너의 아버진 이젠 조합 일을 안 하겠단다》라고 하시는 것이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야요. 어머니》너무나 뜻밖의 일이여서 추옥이는 어쩔 줄 몰랐다.

《넌 어서 학교나 가거라 참견 말구》.

아버지는 몹시 흥분되여 있었다. 추옥이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으나 학교에 늦을가바 그냥 학교로 떠났다.

맥 없는 발'걸음을 옮겨 놓고 있는 추옥이의 머리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떠 올랐다.

틀림 없이 아버지가 어제 조합원 총회에서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 되였다. 이전에 조합 작업반원들이 아버지를 찾아 집까지 와서 어서 일을 시켜 달라고 재촉하던 일, 어떤 때에는 아버지가 일을 시켜 놓고 집에 들어와 집의 바구니를 겯다가 누가 찾아 오면 질겁해 하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 올랐다.

추옥이는 이런 것을 알고도 미처 일러 드리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지난번 분단 모임 때《우리는 조합의 옥수수 한 이삭이라도 내 것처럼 귀중히 여깁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무들이 막 박수를 치던 일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괴로왔다.

《아직 늦지 않아, 오늘이라도 돌아 가면 꼭 이야기해야지, 아버지는 나를 무척 사랑하시니까 내 말을 들어 주실게야》하고 추옥이는 자신을 위로했다. 그 날은 종일 추옥이는 누가 어깨라도 툭 치며《얘 너의 아버지 어떻게 됐니?》하고 묻는 것만 같아서 쉬는 시간이면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마을 아이들이 없는데서 놀았고 저녁에도 혼자서 돌아 왔다.

추옥이는 집에 돌아 오자 그 사실을 어머니께 물어 자세히 알게 되였다.

추옥이 아버지는 자일 농업 협동 조합의 작업반장으로서 처음에 열성껏 일하셨으나 점점 조합 일에 게으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겉으로는 조합 일을 열성적으로 하는 척 하면서도 조합원들의 눈을 피해가며 바구니를 결어서 자기의 리'속만 채우려 했다.

이 것이 조합원들에게는 물론 어린 추옥이 눈에도 한두번 띄였던 것이였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조합원 총회에서 비판을 받고 작업 반장에서 떨어졌던 것이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잘못을 뉘우칠 대신《흥 내가 뭘 잘못했다구, 바구닐 결어선들 하루 밥 세끼야 어디 가겠나……》하고 조합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추옥이의 말도, 작업 반장들

과 관리 위원장 아저씨의 따뜻한 충고도 듣지 않고 직장을 구한다고 여기 저기 떠다녔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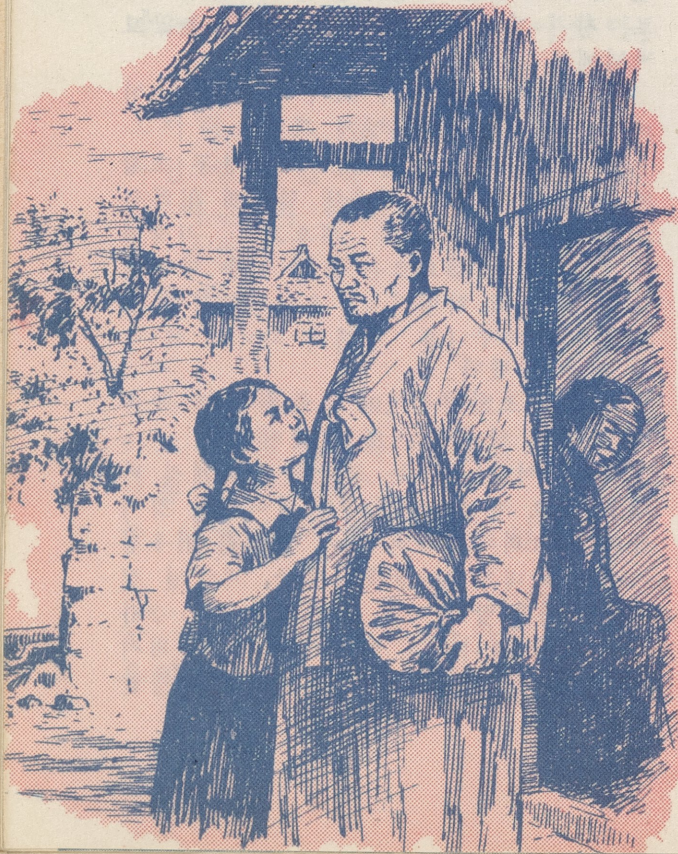
그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다. 추옥이가 바로 학교에서 돌아 왔을 때는 아버지가 새옷을 갈아 입고 문밖을 나서려고 하던 참이였다.

《제발 그만 두시유, 이제 농사두 다 됐는데 딴데 가야 뾰죽한 수가 있수, 조합에서두 다 잘 해 나가자는 겐데》어머니는 직장을 구하려 떠나는 아버지를 붙잡았다.

《당신 못 떠나겠으면 내 혼자라두 가야겠소》 아버지는 문턱을 나서려했다.

《아버지, 어딜 가신다고 그러세요. 협동조합에 들어서 해마다 더 잘 살게 되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난 정 동무들 보기가 부끄러워요》 추옥이는 아버지의 팔 소매를 꽉 붙잡았다.

《그럼 그만 두려마 딴덴 학교가 없니》.

《아버진 내 마음을 몰라요, 요전엔 다시는 지주놈에게 수모 받지 않게 공부 잘해서 어서 훌륭한 농업 기사가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추옥이는 아버지 품에 머리를 묻은 채 흐느껴 울었다. 만일 아버지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교마 5개년 계획》활동에도 모범이 되여 벽보에서 칭찬 받았던 일, 반원들이 자기를 따르던 일들이 허사로 될 것 같기도 했다. 아버지는 우는 딸을 붙안은 채 말 없이 서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정두라는 지주놈에게서 수모 받던 이야기를 딸에게 해 주다가《그 놈들이 글쎄 후퇴 시기에 또 여기 들어와서 소작료를 내라고 행패를 했구나! 지금도 놈들은 행여나 하고 남쪽에서 넘겨보고 있을게다. 그러기 너도 공부 잘해서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더 힘주어 했던 일이 생각 났던 것이다. 그러고 이런 어린 딸이 원쑤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아버지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됐다. 그만 울어라………》사랑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아버지의 눈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버지는 관리 위원장 댁을 찾아 가서 모두가 자신의 잘못이였다고 사과하고 다시금 힘써 일할 것을 말했다.

추옥이의 이야기에서 느낀 것이 많았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집의 딸이 아버지 보다도 나보다도 더 훌륭하웨다. 하하》하고 추옥이의 기특한 행동에 탄복하시는 것이였다. 아버지는 이전보다 몇갑절이나 더 열성을 내여 남보다 뒤졌던 로력 점수도 이제는 따라가게 되였다.

* *

《아버진 뭘 그리 생각하세요?》.

《네 말대로 조합에 남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런다. 우리 마을에 이제 큰 구락부도 짓는다더라, 그리구 저 야산들은 모두 과수원으로 되구………》.

《그럼 우리 마을은 모두 과수 나무로 싸이겠군요! 아버지!》.

풍작 이룬 들판에 서서 사회주의로 나날이 꽃피여 가는 자기 마을의 자랑찬 오늘과 래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는 아버지와 딸의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이 어리여 있었다.

김 추옥이는 평남 평원군 월일 인민 학교 대 소년단원이다.

쏘련은 위대한 나라

조쏘 문화 협회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리 허 구

쏘련은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이다.

쏘련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이다.

쏘련은 제국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제 나라 인민들의 독립과 자유와 리익을 찾으려는 모든 나라 인민들을 정성껏 도와 주는 나라이다.

쏘련은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주었으며 우리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 주는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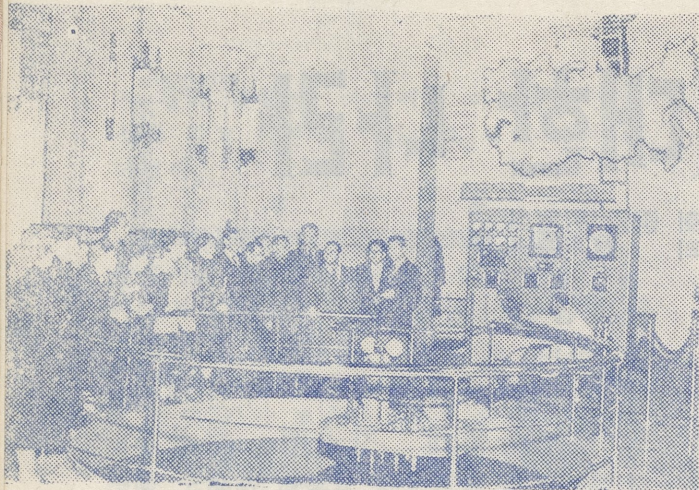
쏘련은 세계의 모든 땅 넓이의 약 6분지 1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데 미국과 영국, 불란서 세 나라의 면적을 전부 합하여도 쏘련의 절반도 되지 못한다.

땅이 어찌도 넓은지 쏘련의 동쪽 땅에 뜬 태양을 쏘련의 서쪽 땅에서는 11시간 후에야 볼 수 있다.

인구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 인도 다음으로 즉 세계에서 세번째 가는 나라인데 미국보다는 3천 4백만명이나 더 많다.

넓고 넓은 쏘련 땅에는 석탄과 광석과 수력 발전 같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묻혀 있다. 그러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전 즉 짜리 로씨야 시대에는 다른 자본주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민들에게 자유와 행복도 없었고 공업과 농업은 보잘 것 없이 뒤떨어진 나라였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위대한 레닌과 쏘련 공산당은 로씨야의 로동자와 농민을 지도하여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승리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로동자와 농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다. 처음으로 탄생한 로동자, 농민의 나라인 쏘련은 세상에서 사회주의 나라를 지워 버리려고 날뛴 14개 나라 무력 간섭자들과 국내 원쑤들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10월 혁명으로 자유와 권리를 얻은 쏘련의 로동자, 농민들은 자기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조국을 영광스럽게 지켜냈다. 공민 전쟁에서 승리한 쏘련은 이어 사회주의 공업을 건설하며 농업을 집단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거기에는 가장 락후하던 자본주의 나라였던 로씨야에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할 난관이 가로 놓여 있었다.

◇원자력 발전소◇

그러나 쏘련 공산당과 정부의 옳바른 지도와 전체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쏘련의 공업과 농업은 급속한 시일 내에 놀랄만치 발전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때에 독일 파시스트들은 쏘련에 대하여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쏘련 인민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하루 속히 가져 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워 파쑈 독일을 멸망시켰고 히틀러 독일이 망한 뒤에도 침략 전쟁을 계속하려고 날뛰는 일본 제국주의를 련달아 쳐부셨다. 그리하여 구라파와 아세아의 수많은 인민들을 해방시켰고 조선 인민들도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였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 인민들은 쏘련 인민을 압박 받는 민족에 대한 진정한 해방자로 존경하며 사랑하고 있다.

쏘련 인민들은 전쟁으로 무너진 공장들과 거리들을 더욱 웅장하고 아름답게 일떠 세우기 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하였으며 짧은 시일 내에 복구 사업을 끝마치고 새로운 공장과 기업소들을 더욱 많이 건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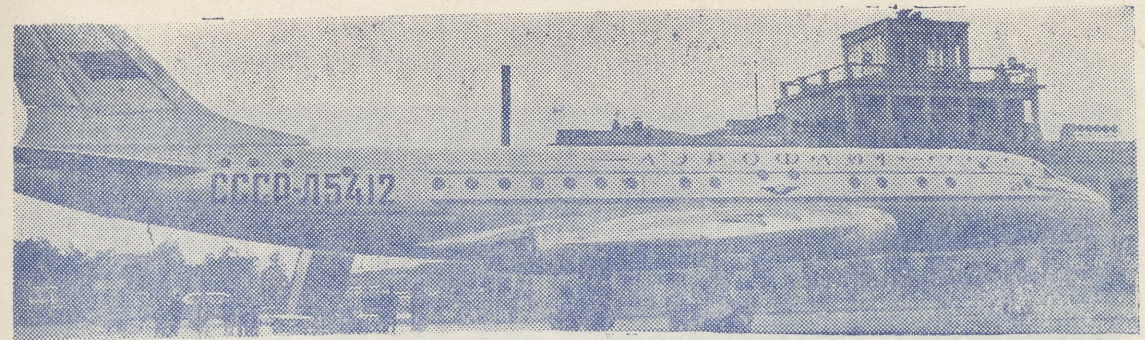
위대한 쏘련에서는 지난 40년 동안에 두 차례의 큰 전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지만 오늘은 10월 혁명 전에 비하여 공업 생산은 30배 이상 전력 생산은 100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같은 기간에 전쟁 피해도 받지 않은 미국은 공업이 겨우 2배 정도 밖에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보다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쏘련에서는 농업에 있어서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는데 지난 제 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새로 일군 논밭만 하여도 우리 나라 북반부의 전체 논밭의 24배나 되며 여기서 새로 거둔 곡식만 가지고도 우리 북반부 인민들이 10년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쏘련은 제 2차 대전 당시 파쑈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를 때려 부시든 때 보다 5배 이상의 공업품을 생산하는 강국으로 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후 40년 동안에 쏘련은 과학에 있어서 더욱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쏘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력을 평화적 산업에 리용하였으며 지금은 원자력을 의

◇쏘련의 제트 려객기 《뚜—104》◇

학과 농업 발전에 널리 리용하고 있다. 원자력을 리용하는 정밀한 시계의 발명으로 자연 과학 연구에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원자력을 리용하여 자동 계산기를 발명한 결과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 기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복잡한 계산을 잠시 동안에 할 수 있게 되였다.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도 쏘련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 오늘 손님들을 나르는 데 로케트 비행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쏘련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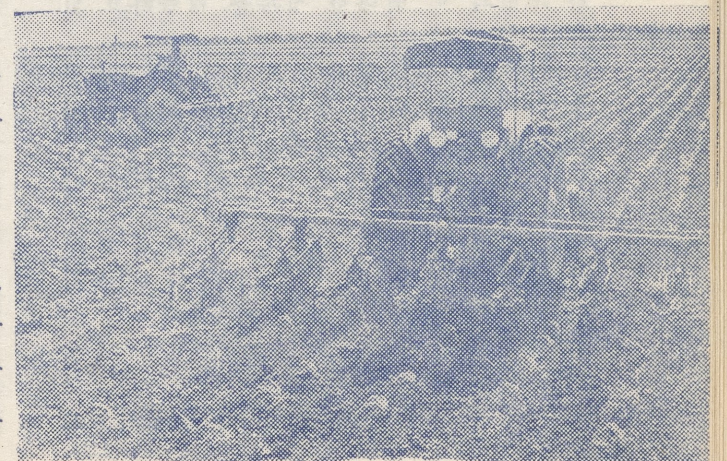
지난 9월 5일에 쏘련 려객 로케트 비행기《뚜 104호》는 모스크바를 떠나 13시간 29분만에 미국에 가 닿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보고 쏘련이 비행기 만드는 데서 자기 나라보다 3년은 앞섰다고 했다.

쏘련에서는 현재 200여만명의 대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라파의 모든 자본주의 나라의 대학생 수를 합한 것보다 2배가 넘는다.

이와 같이 과학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하고 강한 사회주의의 공업과 농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평화를 위하여 굳세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려고 날뛰고 있어도 능히 이 것을 막아 낼 수 있다.

더우기 최근 쏘련에서는 대륙간 탄도 로케트탄을 발명하였는데 이 무기는 사람이 타지 않고도 세계의 어느 곳에나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시간 동안에 6만리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케트탄을 어떠한 방법으로서도 막아 낼 수 없다. 쏘련 밖에는 세계의 어떠한 나라도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고 날뛰는 자들은 놀래고 있다.

이 강력한 무기를 평화를 사랑하는 쏘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으며 만일 어리석게도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이 무기에 의하여 잠시 동

◇ 옥수수 밭을 기계로 매고 있다 ◇

안에 당해 버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침략하려다가 수치스럽게 패망한 후 얼마전에는 영국과 불란서가 힘을 합하여 애급에 대하여 침략을 시작하였는데 쏘련은 애급땅에서 영국과 불란서 침략 군대가 당장 물러 갈 것을 성명하였다. 영국과 불란서 군대가 당황하여 즉시 물러 가게 된 것은 쏘련의 힘이 강해질수록 전쟁을 막아 내는 힘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세계 인민들은 쏘련을 지지하는 것은 곧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매개 민족들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위대한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평화 진영에는 세계 인구의 약 4분지 1을 차지하고 있는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이 친밀하게 튼튼히 단결되여 있으며 인도, 비르마, 인도네시야 등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 인민들도 포함한 15억 이상의 인민이 평화를 위한 투쟁에 발맞추어 나아가고 있다.

위대한 사회주의 나라 쏘련을 이웃 나라로, 형제 나라로, 친근한 벗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쏘련 인민과 친선 단결을 굳게 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쏘련의 새 발명

대륙간 탄도 로케트

쏘련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세계 인민들과 학자들은 위대한 쏘련의 이 커다란 성과를 경탄하고 있다.

전쟁 준비를 일삼는 미국의 두목들은 장거리 로케트커녕 중거리 로케트 시험에서도 실패하여 당황하고 있다.

대륙간 탄도 로케트는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것은 첫째로 어떤 먼 거리에라도 쏘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세계의 어디에서나 이 것을 피할 수 없다.

또 탄도 로케트는 모쓰크바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를 30분 동안에 날아 갈 정도로 빨리 날기 때문에 그 것을 어떤 무기로도 막아 낼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탄도 로케트가 날아 오는 것을 전파로 알아 낸다고 해도 알아 낸 그 순간에 벌써 탄도 로케트는 목적지에 닿기 때문에 싸이렌 울릴 시간조차 없는 것이다.

또 이 탄도 로케트는 공기가 없는 우주권을 날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목적지에 정확히 가 닿는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조준점에서 10~20km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이 것은 탄도 로케트에 강력한 원자탄이나 수소탄을 장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탄도 로케트를 쏘는 기지는 쉽게 건설할 수 있고 쉽게 숨겨 둘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며 어디서나 쏠 수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쏘련이 발명한 탄도 로케트는 평화의 무기이다.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인민들은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만일 미제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지구 우에서 놈들은 멸망되고 말 것이다.

◇최 옥 선◇

평양에서 덕천행 기차를 탄 나는 신성천을 지나 네 정거장만인 가창역에서 내려서 다시 자동차를 타고 서북쪽으로 15리 가량 산'골짜기를 따라 갔다.

《여기가 바로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의 정신을 받든 청년들이 첫 개발자로 달려온 송남 청년 탄광 현장입니다》. 운전사 아저씨가 차를 멈추며 하는 말이였다. 차에서 내리자 높은 산들이 머리에 흰 구름을 이고 우뚝우뚝 솟은 절경이 눈 앞에 안겨 왔다.

《참 깊은 산간이지요? 우리 개발자들이 첫날을 지내던 밤까지도 산 짐승들의 울음 소리가 음산하게 들렸답니다》라고 말하는 운전사 아저씨와 헤여져 나는 건설장을 향해 또다시 골짜기를 올라 갔다. 첫 개발자 형님들의 숙소인 듯한 천막들이 산림 수풀 사이에 늘어섰다. 천막을 지나 언덕에 오르자 눈 앞에는 지난 7월부터 용감한 개발자 형님들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와지는 전경이 바라 보였다.

천막 남쪽에서는 어기영차기영 목도 소리, 제재기 소리, 쎄멘트 이기는 삽 소리가 소란하다. 여기에는 3층 벽돌집 합숙이 천막을 굽어 보며 일어 섰고 합숙 앞에는 아담한 사택들이 수십 채 줄지어 일어 섰다. 형님들은 계속 터를 닦고 돌을 날라다 담벽을 쌓으며 집을 짓는다.

《돌을 빨리빨리 가져 와요. 거북이 같이 느리군요》. 이 곳으로 오기 전에 평양 사동 탄광에서 권양기 운전공으로 일하던 박 순화 누나의 말이다.

《자 쎄멘트를 빨리 가져 오라구》하고 웨치는 태국 형님의 말에 질통을 지고 나르던 형님들이 바빠서 달린다. 녀자 목도 대장이라고 이름난 김 석순 누나가 웡웡 돌을 날라 간다. 태국 형님은 《남자가 못 따라 가겠는걸》하고 싱긋 웃는다.

이 곳에서 탄광 첫 개발자로 일하는 형님들은 사무원으로 일하던 형님도 있고 천을 짜던 누나, 선반기를 다루던 형님들도 있다. 집을 짓는 일은 손에 설다.

그러나 첫 개발자의 영예를 떨치리라는 형님들의 불타는 결심으로 하여 짧은 기간에 벌써 전문가들처럼 솜씨가 빨라졌다. 이리하여 집은 나날이 늘어 간다.

점심 시간을 알리는 고동을 듣고서야 나는 탄광 굴을 파는 공사장으로 향하였다. 점심 시간이라 공사장은 고요하다. 그러나 산'봉우리들에 뚫려진 굴 앞에 쌓인 석탄 더미와 나무 가지처럼 갈래가 생긴 길들은 개발자 형님들의 불타는 투쟁을 말해 주고도 남는다.

그런데 별안간 《석탄이 또 나타났다》하고 함성을 올리며 산밑에 새로 뚫기 시작한 굴에서 형님들이 밀차에 석탄을 싣고 나왔다.

고향에 편지를 쓰고 있던 형님들, 소년단원들에게서 보내온 편지를 둘러 앉아 읽고 있던 형님들, 주위에서 휴식하고 있던 형님들은 《아니 저 동무들이 우리를 이겨 보려고 휴식 시간에도 일하고 있었구

면》하고 수근거리며 모두 모여 들었다. 굴에서 약 100m 앞에 자리 잡은 송남 지구 탐사대 사무실에서 김 양직 탐사대장 선생님도 달음질쳐 나왔다.

밀차를 밀고 나온 박 태근 부리가다장은 《자! 우리 굴에서도 이런 석탄이 나타났소, 송남 땅은 어디를 파든지 모두 석탄이 쏟아질 것 같구려》하며 석탄을 한 줌 쥐여 보이며 아저씨는 기쁨을 참지 못하여 벙글벙글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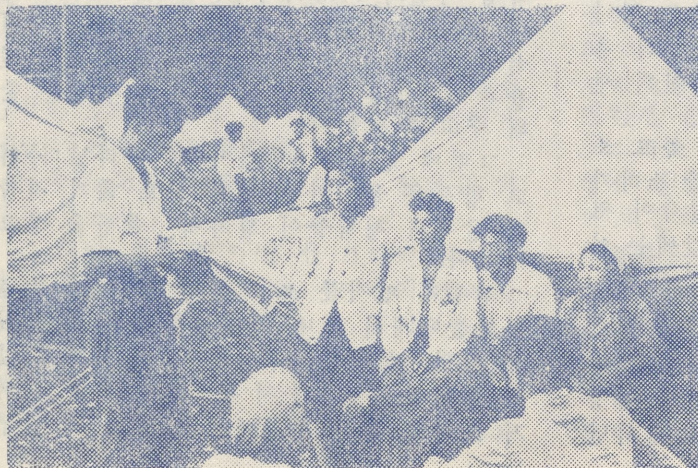
석탄은 유난히 해빛에 반짝인다.

탐사대장 선생님도 기뻐하며 《이 석탄은 동무들의 힘에 의해서 처음으로 해빛을 보는군…》하고 말한다.

지금까지 굴마다에서 나온 석탄은 태근 형님네 굴에서처럼, 운반해 낼 전차'길을 뚫는데서 나온 것이다.

탐사대장 선생님은 계속하여 《수상님도 이 지대는 조선의 돈바스 (쏘련에서 제일 큰 탄광이 있는 곳)라고 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무연탄 매장량의 60%가 이 지대에 묻혀 있으니 놀랄만한 일이지요》라고 말했다.

《이런 큰 탄광을 건설하는 우리 일은 과연 장하고 보람 있는 일이네. 날마다 늘어가는 공장과 도시들에선 더 많은 석탄을 요구하네 이 석탄을 하루 속히 콸콸 실어 공장에, 도시에 실어 보내면 얼마나 기뻐하겠나, 힘껏 일해 보세》.

탐사대장 선생님은 동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앞으로 저 산'봉우리에서 일하게 되는 동무들은 알 것입니다. 저 산은 계란 모양으로 웃껍질만 벗기면 모두가 석탄입니다》.

형님들은 《야》하고 소리까지 치며 감탄한다.

이 때 굴 앞 둥마루 집에서 사는 장 두포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부르쥐고 숨이 차서 걸어 온다. 《아니 이 굴에서도 석탄이 벌써 나왔다구! 난 60평생을 오르내리면서두 그 보물이 가득 묻혀 있는 줄이야 꿈에나 생각했나!》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기쁨에 넘친 웃음을 터뜨린다. 할아버지는 석탄을 두 손으로 만져 보며 《아니 이 고장이 이런 보물이 많은 곳으로 조선에서 제일 유명하다면서?》.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이 지방에 석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만일 황소 달구지로 실어 내자면 수천 수백년 걸려도 안 될겁니다. 석탄이 1억만톤 이상 묻혀 있다니 말입니다》하고 부리가다장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혀를 채며 《오래 사니 좋은 세상을 보우, 일평생을 이름 없는 산'골에서 늙나부다 했더니 이렇게 굉장한 곳에서 살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나》하고 련신 감탄한다.

《할아버지, 부디 오래 살으십시요, 래년이면 가창에서 이 곳까지 기차도 다니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밀차로 석탄을 나르지만 앞으로 굴안의 석탄은 전차들이 실어 나르게 됩니다. 이 탄광은 전부 새로운 기계들로 일하게 됩니다. 앞으로 3—4년 후에는 우리 손으로 1년에 40~50만톤 이상 캐여 냅니다.

이 송남 청년 탄광은 석탄이 많이 나는 곳으로도 유명해지고 새 기계들로 설비된 탄광으로도 유명해 질 것입니다》. 부리가다장은 탄광의 앞날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을에 영화관, 목욕탕, 무도장 등 웅장한 건물이 많이 늘어서며 훌륭한 도시가 일어선다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다.

《그 일을 다하자면 자네들의 수고는 참 크겠네》하며 할아버지는 비가 억수로 퍼붓던 날 밤에 있은 일을 이야기하였다.

어느 날 깊은 밤에 산이 떠나갈 듯 비가 내렸다.

이 날 형님들은 벽돌이 미처 도착되지 않았으나 쉬지 않고 돌을 주어다 모양 좋은 집 담벽들을 쌓았다. 그런데 하루 종일 쌓아 올린 담벽들이 소나기를 맞으면 다 무너질 것이다. 천막에서 잠을 자던 리 태국 형님과 리 광복 형님은 옷을 벗고 달려 나왔다. 천막의 형님들은 모두 뒤따라 나왔다. 그들은 자기 비옷들을 가져다 담벽에 덮었다.

한편에선 전주를 세우는 형님들의 땅을 파는 소리가 소나기 쏟아지는 속에서도 계속 들리였다. 25리가 넘는 신창 탄광에서 전기를 끌어 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험한 산 벼랑을 뚫고 10메터에 하나씩 전주를 날라다 세우며 겹겹히 둘러 막힌 산을 넘어야 한다. 그렇다고 오랜 기일을 두고 끌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형님들은 비가 오건 캄캄한 밤이건 가리지 않고 일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몇달 동안 걸리리라 계획했던 전기도 10여일만에 끌어 들여 밤이면 암흑 같이 캄캄하던 산간에 불꽃을 활짝 피웠다. 전기가 들어 오자 형님들은 밤에도 불을 켜 놓고 일을 시작했다.

비 오는 날 밤 할아버지는 자지 않고 일어나 앉아 《이게 다 제 일이니 저렇게 하지》하며 감탄하였다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칠줄 모른다. 작업을 알리는 고동이 울려서야 모두들 헤여졌다.

작업장은 순식간에 전투장으로 변했다. 쾅쾅 남포 소리가 울린다.

포연이 사라지기가 바쁘게 수많은 굴마다에서 밀차들이 드르룽드르룽 소리를 내며 연방 머리를 내민다. 밀차들은 마치 운동회 날 륙상 선수들처럼 앞을 다투며 달린다.

형님들의 눈부신 투쟁은 웅장한 《청년 도시》홍수처럼 무연탄이 쏟아질 《청년 탄광》을 건설한다는 자랑과 기쁨으로 하여 더욱 불타 올랐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선 지도를 펼쳐 놓고 보물의 나라라고 자랑할 때면 의례히 《송남 청년 탄광》 《청년 도시》라고 기록된 보물의 땅 송남 지구를 먼저 짚을 앞날을 생각하면서 건설장을 나왔다.

1957년 9월 5일

리 어금 동무

함북 연사 제1 중학교 대리 어금 동무는 남달리 문학에 소질을 가진 어린 문학가랍니다.

그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크루쇼크 모임에서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를 비롯하여 이미 30여권의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발표해 왔습니다. 한편 그는 문학 선생님의 친절한 지도를 받아 작품도 지어 보고 있습니다.

어금 동무의 꾸준한 노력은 훌륭한 열매를 맺았습니다.

그가 지은 동요 《토장의 기중기》와 기타 작품들은 훌륭한 평가를 받게 되였고 이미 중앙 방송국에서 어린이 시간에 방송까지 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동요《수탉은 꼬끼요》는 지난 《아동 문학 창간 10주년 기념 문예 작품 현상 모집》에서 가작으로 당선되였으며 동요 《가을 바람》은 김 남오 선생이 작곡을 하였는데 지난《민청 창립 11주년 기념 문예 작품 현상 모집》에서 동요곡 부문 1등으로 당선되였습니다.

어린 문학가 리 어금 동무의 재간 있는 솜씨와 꾸준한 노력은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의 훌륭한 모범으로 되였습니다.

새로 선거된 열성자들이 할 일

새로 선거된 열성자 동무들!

동무들은 전체 소년단원들의 열렬한 사랑과 지지를 받아 영예로운 열성자로 선거되였습니다.

열성자로 선거된 동무들에게는 자기를 선거해 준 소년단원들을 위하여 보다 유익하고 훌륭한 사업들을 해 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가 맡겨지고 있습니다. 소년단 단체의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오직 열성자들이 잘 활동하는가 못 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열성자들은 항상 사업함에 있어서 소년단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소년단의 임무는 우리 나라 앞날의 주인이 될 소년들을 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로 교양하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열성자들은 첫째로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투쟁과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 투쟁 력사를 연구하며 그 애국심을 모범 받는 사업을 다채롭게 조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김 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과 일제를 반대한 애국적 활동을 연구하며 아동 혁명단원들의 애국적 투쟁을 모범 받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의 상봉, 이야기 모임도 자주 가집시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운 을지 문덕, 강 감찬, 리 순신 장군 등 훌륭한 애국자들을 선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고향들에는 그 어데나 할것 없이 침략자들과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 투쟁 력사가 깃들어 있으며 고적지, 전적지, 력사적 유물들이 있습니다.

고향의 고적지, 전적지, 력사적 유물들을 답사 견학하며 고향의 력사를 연구하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합시다.

다음으로 조국과 인민을 팔아 먹으며 해치려는 우리 원쑤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며 그들을 미워할 줄 알도록 하는 사업을 잘 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려면 조국과 인민을 해치려는 자가 누구인가를 꼭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쑤들은 바로 조국 남쪽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강도놈들과 리 승만 도배들이며 이들과 한편인 악독한 지주, 자본가놈들입니다.

우리 열성자들은 이 원쑤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배가 우리 인민을 자기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감행한 만행을 낱낱이 폭로하며 조국 해방 전쟁 때 원쑤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애국 렬사 가족들을 원호하는 사업을 소년단원들의 애국적 사업으로 되게 합시다.

그리고 지난 날 우리의 원쑤들이 로동자,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여 왔는가를 알기 위해 로동자, 농민들과의 상봉도 조직합시다.

우리의 원쑤들은 조선 인민의 단결된 힘이 커 가면 커 갈수록 마지막 발악을 다하며 우리 인민들을 다시금 노예로 만들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쑤들에 대한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원쑤들이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 및 분단들에서는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반 간첩 투쟁에 나선 우리 나라 인민들의 투쟁 경험들을 알려 주며 조 옥희 소년 자위대원들의 용감한 활동을 비롯하여 많은 소년단원들이 용감하게 간첩들을 잡아 내던 훌륭한 모범을 본받게 합시다.

다음으로 전체 소년단원들이 학습을 잘 하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소년단원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 공부하는가를 똑똑히 알려 줌으로써 그들이 더욱 지식을 사랑하며 학습과 규률에서 항상 모범이 되도록 방조해야 할 것입니다. 크루쇼크에서는 실험 실습을 잘 조직하며 최우등생들의 우수한 학습 경험을 널리 소개하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합시다. 그리고 《과학의 밤》, 《과학과 미신》 기타 이야기 모임과 실험, 관찰 등 과학 지식을 배우는 일들을 많이 조직합시다.

다음으로 소년단원들에게 로동을 사랑하며 나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빛나는 로력 투쟁을 본받아 앞날의 훌륭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자라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열성자들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에 전체 소년들을 적극 참가시키며 보다 훌륭히 나라 일을 도와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종 체육 문화 오락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각종 체육 경기와 행군을 잘 조직하며 재미나는 유희와 오락들을 광범히 진행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이 체력 검정에 합격되도록 하며 노래와 춤을 즐기도록 합시다.

이상과 같은 모든 일들을 훌륭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열성자들이 학습에서나 생활에서나 모든 사업에서 항상 전체 소년단원들의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소년단원들의 좋은 의견들을 한데 모아 전체 동무들이 즐기는 유익한 일들을 잘 조직해야 합니다.

우리 소년단원들 가운데는 과학을 즐기는 동무, 체육을 좋아 하는 동무, 그림을 잘 그리는 동무 등 여러 가지 취미와 재간을 가진 동무들이 있습니다.

열성자들은 모든 사업에서 혼자 도맡아서 일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이런 동무들과 함께 손잡고 그들이 소년단 사업에 열성을 내도록 사업을 조직해야 합니다.

열성자들은 모든 사업을 지도원 선생님과 잘 의논하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열성자들은 지도원 선생님이 모든 것을 해 주겠거니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소년단 사업을 꾸려 나갈 주인은 바로 우리 열성자들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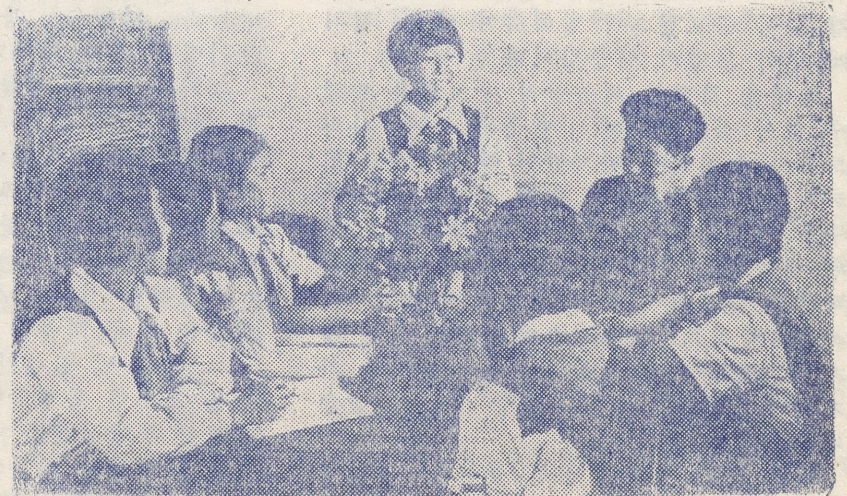
그러므로 열성자들은 대와 분단, 반에서 있은 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 등 모든 일을 지도원 선생님과 잘 의논하며 자기들의 힘으로 잘 조직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동무들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위임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힘써 나갑시다.

◇

선거된 분단 열성자들은 첫 사업에 착수하였다.

사진은 평양 제4 중학교 대 10분단 열성자 모임.

◇

(일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한 광주 반일 학생 운동)

지금으로부터 28년전, 1929년 11월 3일은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나라 학생들의 슬기로운 투쟁의 불'길이 오른 날입니다.

이 투쟁은 광주 학생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 학생들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것입니다.

이처럼 일제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한 지방에서 일어나서 전국 학생들의 투쟁으로 커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때 전체 학생들이 원쑤 일본 강도들을 한결 같이 증오했으며 반대하여 싸울 결의에 넘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을 강점한 왜놈들의 강도질은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들은 자기들이 착취 당하는 일터에서마저 쫓겨나서 멀리 씨베리야로, 만주로 쪽박을 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한편 왜놈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를 가르치지 않고 놈들의 력사를 억지로 가르쳤으며 일본 말을 강제로 쓰라는 등 조선 사람을 순전히 자기들의 머슴'군으로 만들 작정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심한 착취와 억압에 시달려 오던 우리 나라 학생들은 전라 남도 광주에서 조선인 중학생과 일본인 중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투쟁의 불'길을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1929년 10월 30일 라주와 광주 간의 통학 렬차 내에서 일본인 중학생이 조선 사람을 야만이라고 하면서 조선 녀학생들에게 참을 수 없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본래부터 일제를 미워하던 조선인 학생들은 이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우리에게 잘못을 빌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인 학생들은 도리여 반항해 나왔고 광주역에 내리자 달려들기까지 하여 격투가 시작되였습니다.

그러자 왜놈 경찰들이 미친 듯이 달려 들어 덮어 놓고 조선인 학생들을 마구 때리며 잡아 가두었습니다. 한편 왜놈들의 신문 《광주 일보》는 이 충돌이 마치 조선인 학생들의 잘못에 있는듯이 떠들어 댔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광주 시민들과 광주 학생들을 더욱 격분케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일본인 중학교에서는 이 책임을 조선인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조선인 통학생들을 위협 공갈하기 위하여 일본인 교장을 비롯하여 전체 교원 학생들이 몽둥이를 들고 광주역에 나와 위협 시위를 진행하면서 달려 들었습니다.

조선인 학생들은 처음에 맨 주먹으로 이에 대항해 나섰습니다. 이 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광주 역전 정미소 로동자들은 우리 측 학생들을 응원하여 주었습니다.

분노의 싸움은 터졌습니다. 그러나 곧 왜놈의 무장 경찰들이 총동원되여 이번에도 수 많은 조선인 학생들만을 무리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 광주에 조직되여 있던 공산주의적 학생 단체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반제 투쟁에로 학생들을 불러 일으킬 대책을 토의하고 11월 3일 소위 놈들의 《명치절》을 계기로 일제히 시위 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3일 드디여 광주 시내 조선인 학생들은 일제히 동맹 휴학을 일으키고 모두다 거리에 달려 나와 혁명 가요를 부르며 반일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손에 곤봉을 든 조선인 학생들은 달려 드는 일본인 학생들을 본때 있게 때려 눕혔으며 한편 허위 보도를 날조해 낸 《광주 일보사》를 포위하고 인쇄 기계들을 파괴하였습니다.

거리마다에서는 선동 연설이 군중들을 격동시켰고 시민들과 청년들은 학생들의 반일 투쟁을 적극 원호해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거센 봉기에 겁을 먹은 왜놈들은 무장 경관들과 소방대까지 총동원하여 야수적인 탄압을 가하였으며 수 많은 학생들을 또 다시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적개심에 불타는 애국적 학생들의 완강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1월 11일 광주의 학생들은 다시 대대적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광주 고등 보통 학교와 사범 학교, 농업 학교, 그리고 녀자 고등 보통 학교 학생들은 일제히 아침 일찍부터 가두 시위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렬은 거센 파도와 같이 거리 거리를 지나 광주 형무소를 향하여 밀려 갔습니다.

《일제를 타도하자!》,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페지하라!》, 《피검자들을 즉시 석방하라!》는 등 학생들의 웨치는 구호 소리는 온 거리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위 대렬에는 어린 보통 학교의 학생 소년들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들의 뒤를 학부형들이 이었습니다. 시민들과 농민들이 시위자들에게 호응하였습니다. 시위는 무장 경찰들과의 피어린 충돌로 변해졌습니다.

이리하여 또 다시 수백명 학생들이 체포 투옥되였으나 투쟁은 류치장과 형무소 내에서도 계속되였습니다.

광주에서 폭발된 학생들의 반일 투쟁의 불'길은 곧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 갔으며 일제에 대한 격분과 분노의 물'결은 전국 학생들과 인민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광주 학생들에 대한 왜놈 경찰의 야수적 만행을 항의해 나섰으며 학원의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한결 같이 일떠 나서 싸웠습니다.

왜놈 경찰과 헌병들의 야만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대학과 남녀 중학교 학생들, 평양, 인천, 함흥, 원산, 개성, 대구, 부산 기타 각지 학생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투쟁에로 궐기하였으며 전국은 학생들의 반일 투쟁으로 들끓었습니다.

약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이 투쟁에 참가한 학교 수는 실로 194교 였으며 그에 동원된 학생 수는 5만 4천여명에 달하였습니다.

이렇듯 광주 반일 학생 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노예 교육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의 혁명적 투지를 남김 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3.1 운동이나 6. 10 만세 운동들과 함께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의 애국심을 빛나게 시위하였습니다.

이 투쟁은 우리 나라 학생들의 애국적 혁명 투쟁 력사에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첫 견학

최 화구

새 학기를 앞둔 8월 31일이였습니다.

제1 분단 열성자들은 새학기 첫날부터 소년단 생활을 재미 있게 잘 해 나가려고 소년단 열성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는 분단 동무들이 꼭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4학년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된 자연'과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사업도 의논되였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 때만 하여도 분단 동무들 가운데는 자연 교과서를 읽어 보고서는 힘든 과목으로 여기는 동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분단의 첫 사업으로 된 황해 제철소 견학은 분단 동무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견학에 앞서 그들은 열성자들이 할 일과 다른 동무들이 할 일을 나누어 견학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열성자들은 동무들이 주의 깊게 볼 부분을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한 룡만, 김 순섭, 김 재환 동무들을 선발대로 황해 제철소로 보내였습니다. 그 것은 견학할 때 굉장한 용광로와 기계들에 눈을 팔고 자기가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을 세밀히 관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선발대 세 동무들은 용광로, 해탄로, 평로, 조강 직장, 기계 직장들을 보고 돌아 왔습니다. 그들은 분단 동무들에게 견학 준비로 자연'과에 나오는 《선철, 연철, 강철》과《제철》의 내용에서 모를 것은 무엇이며 의문 나는 점들은 무엇인가를 알기로 했습니다.

《강철은 어떻게 만들기에 선철보다 굳은가?》 《왜 곡스는 불이 잘 붙는가?》 분단 동무들은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견학할 생산 공정을 그림으로 그려서 동무들에게 알려 주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을 미리 가르쳐 주기에 힘썼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자기들이 견학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학습장에 적어 두었습니다.

40명의 분단 동무들은 9월 4일 오후 2시에 황해 제철소를 찾아 갔습니다.

처음 그들은 안내자 아저씨를 따라 제강 직장으로 갔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맨 뒤에서 걷던 승섭이가 손질하며 웨치는 바람에 모두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승섭이는 파철을 가득 싣고 달리는 기차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였습니다.

그 뜻을 알아 차린 안내자 아저씨는 《…그 파철은 평로에 들어가 강철로 되는 데 그 강철로 레일, 철근, 철판 등을 만들어 건설장이나 공장들에 보낸다》라고 하시였습니다.

그 말은 분단 동무들을 모두 기쁘게 했습니다. 그 것은 이 분단 동무들이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으로 파철을 10톤이나 모아서 수매소에 가져 갔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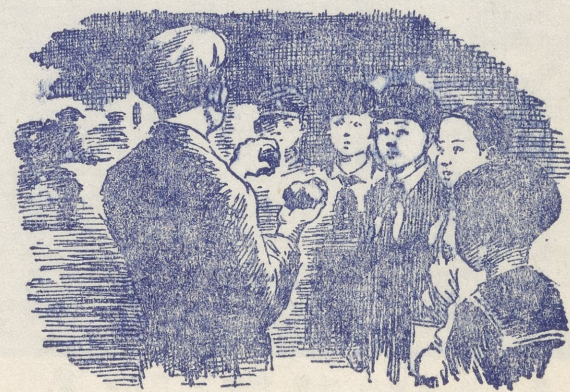
그들은 평로 앞으로 다가 갔습니다. 뜨거운 불'길에 얼굴이 달아 오르고 숨이 막힐 지경이였습니다. 그러나 용해공 아저씨들은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일을 증산으로 맞기 위해 10만톤의 국가 계획을 10월 10일까지 완수하고 년말까지는 금년도 증산 목표보다 4만톤의 강괴를 더 생산하기에 눈부시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선발대들이 말한 대로 용해공 아저씨들이 일하는 평로를 보았습니다. 유심히 보고 모르는 것은 아저씨들에게 물어서 선철과 강철의 성질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

선철은 철광석을 녹여서 만들어졌고 강철은 선철에다 파철, 망강, 마그네숨 등을 섞어서 평로에서 녹여 만드는 것이였습니다.

강철이 선철보다 굳은 원인을 안 그들은 강철로 철선, 레일, 철판 등을 만드는 조강 직장에 들어 갔습니다.

엷다란 철판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본 그들은 그 철판이 무엇에 쓰이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그 것이 0.4mm 박강판이라고 하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신의주 법랑 철기 공장에서 만든 그릇을 집에서 잘 보았을 것이다. 그 것이 박강판으로 만든 것이란다》라고 하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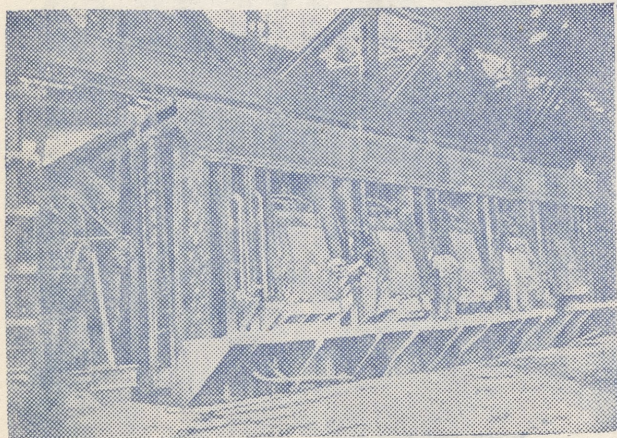
설명을 자세히 듣고 있던 그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지난 날 그들은 견학 준비를 하면서 깨여진 남비를 보고 연철로 만든 것이라거니 강철로 만든 것이라거니 하면서 옥신각신하였던 이야기

를 했습니다.

안내자 아저씨는 벙글벙글 웃으시면서《너무도 얇으니 연철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연철판은 쉽게 휘여지지만 강철판은 꺾어는 져도 쉽게 휘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치로 두드리면 연철은 펴져도 강철은 잘 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해탄로에서 꼭스를 만드는 공정에 대하여도 알게 되였습니다.

꼭스를 만드는데는 유연탄을 큰 가마에다 넣고 열을 가하여 얻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꼭스가 높은 온도를 내여 광석을 녹일뿐만 아니라 산소를 뽑아 내는 작용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꼭스를 만드는 해탄로 복구 현장을 보고 난 그들은 용광로 복구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 로동자 아저씨들은 용광로 제1호를 명년 5. 1절까지 복구하려고 눈부시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 황해 제철소 3 호 평로 ◇

그들은 철광석으로부터 선철이 나오고 선철이 강철로 되고 강재품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생산 공정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일하는 로동자 아저씨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견학을 끝내면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추 상수 아저씨를 모시고 모임도 가졌습니다.

추 상수 아저씨는《…제1차 5개년 계획 동안에는 용광로 2개와 해탄로 그리고 6개의 평로가 완전히 복구되여 선철, 강철 등을 많이 생산하게 된단다. 우리 황해 제철소는 이 일을 위대한 쏘련 인민들이 보내 준 10억 루블리의 원조를 받아 빨리 그리고 훌륭히 복구하게 된단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쏘련 기사 브르따꼬브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평로를 복구하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추 상수 아저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조선 인민의 해방의 은인이며 원조의 은인인 쏘련 인민들께 감사를 드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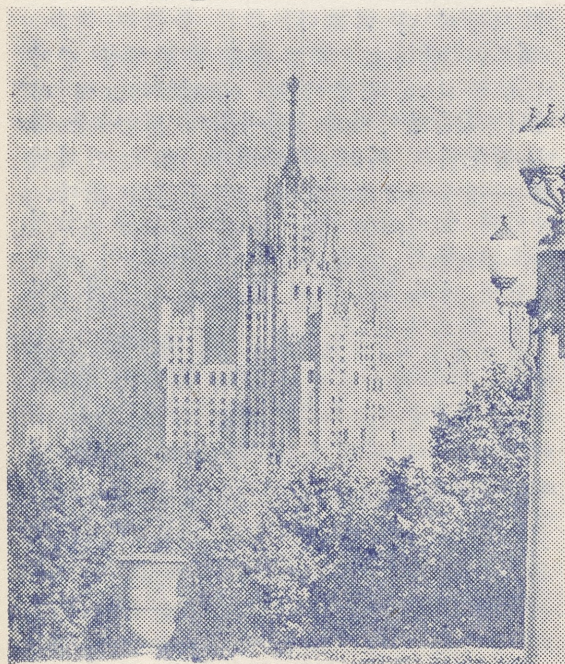
황해 제철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 가는 분단 동무들의 마음은 한량 없이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황북 송림시 제 2 인민 학교 제 1 분단에서—

◇ 박 세 영 ◇

나는 모쓰크바에 가기 전에 넓고넓은 씨비리 지대만 보고도 쏘련이야 말로 얼마나 큰 나라며 위대한 나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 넓은 대지가 광막한 풀밭으로 잇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해(나무 바다)를 이룬 것이다.

망망 대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처럼 봇나무, 가문비, 분비, 이깔나무로 바다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수 만리를 가도록 나무 숲은 끝이 없다. 여기저기 목축의 떼가 노는가 하면 새로 개간하는 곳이 나타난다.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들어선 곳도 많지만 10월 혁명 이후에 자란 3—40년생의 나무 숲을 이룬 곳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씨비리 대지에는 지하 자원도 많지만 이 삼림의 자원도 한이 없을 것이다.

◇ 모쓰크바 종합 대학◇

나무를 사랑하는 나는 한 없이 부러웠다.—우리 나라의 그 많은 산들에도 이와 같이 빈틈이 없도록 삼림이 자라게 하고 가로수도 과수를 심어 가꾸리라—나는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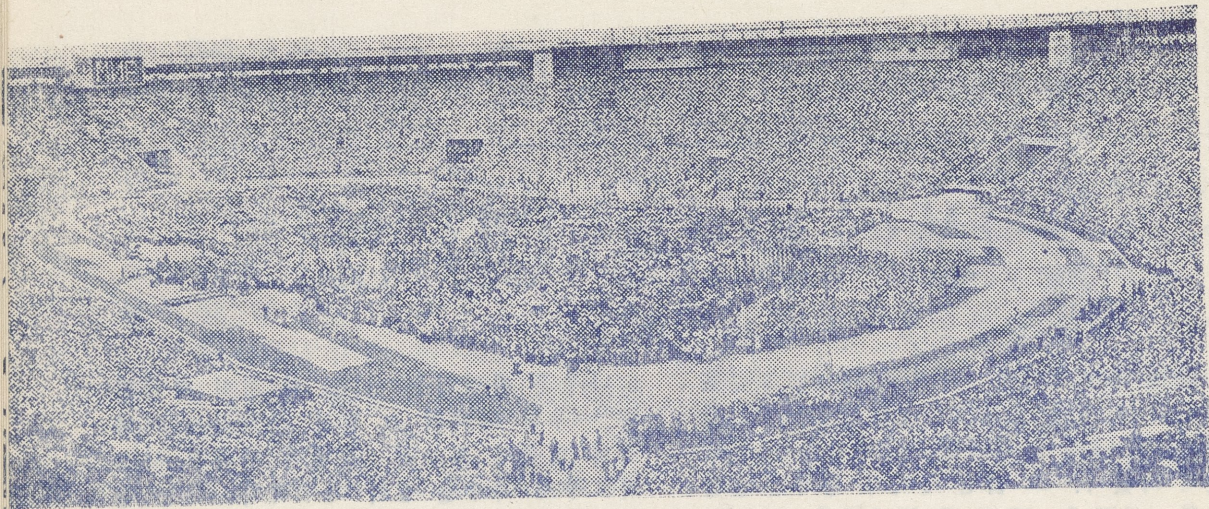
위대한 레닌이 가르치신 것처럼 이 끝없는 씨비리 대지도 이제 전기화되여 가지 않는가! 무성한 삼림은 방풍림이 되고 무연한 초원에는 라맥(밀)의 이삭 물'결이 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공청원들은 지금도 저렇듯 개간 사업에 열성스럽게 나서고 있지 않는가.

씨비리를 지나 오는 동안에 내가 또 하나 마음 속 깊이 느낀 것은 소박하며 진실하며 친절한 쏘련 인민에 대해서이다. 세상에 처음 만나서 서먹서먹하지 않고 스스럽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대하는 쏘련 사람들은 친 형제나 다름 없게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공산주의의 높은 도덕적 교양을 받은 아주 새로운 모습의 인간이란 것을 나는 다시금 느끼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행복을 마련하는데 맨 앞장을 선 것이다.

내가 모쓰크바에서 느낀 것은 더욱 많지만 모쓰크바 도시 하나만 보고도 쏘련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쏘련은《평화의 성새》라고 하는 데 직접 나의 눈으로 보니 더욱 그러하였다.

거리거리에 밀물처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희망에 찬 얼굴들을 하고 활기를 띈 것을 볼 수 있다. 화려한 거리의 수십층 건물들이 로동자들의 아빠트이며 예술가들의 아빠트로 되여 있다.

길'거리에 줄닿아 있는 그렇게 많은 상점은 개인의 것은 하나도 없고 식당도 그

◇제 6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개막식이 열린 레닌 명칭 중앙 경기장◇

려하니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자취도 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나 하나보다 많은 군중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며 더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것은 결국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나는 밤 거리에서 뽐프물로 길 바닥을 깨끗이 소제하는 한 쏘련의 아주머니에게서도 이 것을 보았다.

도로 청소 자동차로 비질을 하며 걸레질을 하는 쏘련 로동자에게서도 그들의 공산주의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았다. 그러기 씻은 듯한 거리는 바람이 불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는다. 담배 꽁초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니 누구 하나 침도 뱉지 않는다. 그러기에 침 뱉는 버릇이 있는 나도 여기 와서 버릇이 고쳐졌다.

또한 축전을 경축하는 도시 미화 장식도 아름답게 가장 새롭게 꾸미였지만 모쓰크바는 하나의 큰 지상의 궁전 같았다. 이르는 곳마다 꽃밭 사이에 분수가 솟고 동상도 솟아 있다.

심지어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사기 그릇으로 만든 크고 둥근 화분을 늘어 놓은 것이다. 이 화분에는 어여쁜 꽃들이 활짝 피여들 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꽃이 다 지면 밤 사이에 다시 모종을 해다 심어서 언제나 꽃이 피여 있게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길'거리를 걸어 가면서도 화원 속을 지나 가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것을 다치는 사람도 없다.

이와 같이 모쓰크바가 지상의 궁전이라면 지하 철도는 지하 궁전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정류장이나 에스까레따를 타고 내려 가면 궁전 같은 넓고 긴 방이 나타난다. 바닥도 유리 같은 팥빛 대리석이요, 벽도 조각한 대리석이다.

천정은 벽화로 아름답고 싼떼리야와 벽의 전등 불'빛은 요지경 속을 보는 듯 황홀하다. 《꼼쏘몰스까야》정류장이나 《끼롭스까야》 정류장 등 모든 정류장들이 제각기 모양이 다 다르다.

5분이 멀다고 지하철은 바람처럼 달려 가고 달려 오는 것이다. 이렇게 빠르게 다니니 백만명이라도 잡시간에 다 나를 것만 같았다. 나도 모쓰크바 호텔 아래에 있는 정류장으로 가려고 지하철을 탔다. 차칸에 들어서니 이 편에서 삐오네르들이 서로 다투듯 냉큼 일어들 나고 저 편에 앉았던 녀학생이 벌떡 일어나 나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삐오네르는 내가 차를 잘 못 탄 것을 알자 일부러 차에서 내려 자기가 탔던 차를 놓치면서도 나를 태워 주고 가는 것이다. 그 때 나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던 삐오네르의 파란 눈동자는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내가 레닌산에 솟아 있는 모쓰크바 종합 대학을 참관했을 때는 그 것은 하나의 과학의 전당으로 여겨졌다. 대학이 아니라 장엄한 궁전 같은 이 큰 건물은 복도와 벽이 모두 대리석으로 되였다. 마침 나는 큰 회의실로 들어 갔다.

거기에는 수십 나라 학생들이 축전에 참가할 써클 공연을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온 학생들도 적지 않아 보이고 흑인들도 있었다.

나는 이십층이나 되는 광물 표본실로 올라 갔다. 거기에 진렬한 것만도 다른 나라의 전문 연구소보다 더 굉장한 것에 나는 다시 한 번 놀랐다.

레닌산 앞으로 나와 아래를 내려다 보면 모쓰크바강 넘어 데 경기장이 보인다. 이 것이 레닌 명칭 중앙 경기장이다. 큰 타원형의 스따지온과 롱구 경기장, 수영 경기장들과 같은 부속 건물들로 되였다. 십만 4천석을 가진 대경기장은 세계의 어느 경기장 보다도 아주 훌륭한 것이라 한다. 경기장도 좋지만 나는 제6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개막식에서 느낀 것이 더욱 크다. 개막식 날은 수만 마리의 비둘기가 하늘을 덮을 듯 나르고 색스런 고무 풍선이 또한 그렇게 날려 올라 갔다.

비둘기들은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모인 134개국 대표들을 환영하는 듯 공중에서 날아 돌다가 만국 기'발이 날리는 기'대에도 앉고 경기장 지붕 둘레에도 나란이 내려 앉았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앞장서 싸우는 쏘련 인민은 비둘기를 더없이 사랑한다. 그러기에 크레믈리 광장 한옆에도, 레닌그라드 복잡한 거리 한쪽에도 둥그렇게 흰 줄을 긋고 그 테두리 안에서 비둘기들을 놀게 하였다. 그래서 비둘기들은 날아 돌다가도 이리로 내려 앉군 한다.

나는 지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모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쏘련을 위시한 세계의 량심들이 강철과 같이 단결된 모습을 본다.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기 위하여 시위하는 평화에로 뭉친 힘을 본다.

풀빛 융단을 그 넓은 경기장에 깐 우로 백삼십여 나라 청년 학생 대표들이 저희 나라 기'발을 날리며 입장할 때 온 장내 십만의 관중은 그칠 없는 박수로 환영하였다.

영국과 불란서의 침략을 물리친 애급, 민족적 독립을 선포한 아프리카의 수단, 불란서와 싸우는 알제리아, 그 밖에도 침략자들을 반대해 싸우는 약소 국가들의 대표들이 입장할 때는 장내가 떠나갈듯 굉장하게 환호하는 것이였다.

더욱이 세계 각국 대표들이 쏘련 대표들의 입장을 볼 때는 두말할 것 없이 평화의 성새를 눈앞에 보는 듯 하였을 것이다. 다 각기 자기 민족 의상을 입고 16개 가맹 공화국의 이름으로 참가한 쏘련 대표의 입장은 참으로 장관이였다.

내가 레닌그라드 삐오네르 궁전을 참관했을 때 여기 체육 써클 출신으로서 이번 축전에서 금메달을 수여 받은 청년 남녀가 수십명이라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쏘련의 대표 선수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번 축전에서 쏘련이 모든 종목에서 첫째를 차지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쏘련 공산당이 지도하는 쏘련의 사회 제도가 그처럼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쏘련이 그처럼 강대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나는 쏘련에서 이 것을 보았다.

◇모쓰크바 지하 철도◇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얼굴이 둥실하고 코 끝이 약간 치여든 영남이는 쥐새끼가 덜꺼덕거리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가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 앞에는 또 오늘 낮에 이 고장 상공에서 벌어졌던 공중전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삽시간에 맑고 파아란 겨울 하늘은 비행운에 덮였고 비행기들은 서로 꼬리를 물고 아득히 높이 치솟아 올라 갔다가도 갑자기 내리 꽂기도 하고 옆으로 멀리 미끌어져 선회하면서 격투하였습니다.

영남이는 할아버지가 나무하러 갔고 어머니는 아래 마을에 볼 일이 있어 갔기에 밖에 나와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싸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 몸이 긴장되여 숨을 죽이고 하늘을 쳐다 보고 있었습니다.

별안간 한 비행기가 앙—하고 비명을 지르며 내려 왔습니다. 영남이는 그 비행기의 배때기에 미국놈의 표식이 붙어 있는 것을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놈의 꼬리를 물고 쫓아 내려오는 것은 틀림 없는 우리 비행기였습니다.

미국놈 비행기는 바빠서 다시 올리 꽂았습니다. 이 때 또 한 비행기가 그 놈에게로 옆으로부터 육박하면서 뚜루루루…하고 사격했습니다.

순간 그 놈의 가슴팍에서 확하고 시꺼먼 연기가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불덩어리로 되여 저쪽 산 넘어로 떨어졌습니다.

영남이는 어찌나 기뻤던지 여기가 적강점 지구라는 것도 잊고 《만세—》《만세—》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뒤'이어 두 대의 비행기가 시꺼먼 연기를 뿜으며 남쪽으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지금 영남이는 누워서 이런 것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나두 꼭 비행사가 될테야……아버진 땅크 중대장이지만 난 비행사가 될테야!》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던 영남이는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

《엄마, 엄마 내 말 들어 봐》.

그래도 어머니는 대'구 안 했습니다.

영남이는 아까 어머니가 앉아서 바느질하고 있던 아래'목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곳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직 안 돌아온듯 했습니다. 단지 아래'목에서 녀동생 옥란이가 막 엎드려서 고양이가 발바닥을 핥기에 흰 만두 떡만한 발을 오밀오밀거리면서 자고 있을 뿐이였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밖으로 나간 영남이는 저 쪽 감자 굴 쪽에서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허리를 굽히고 무엇인가 바삐 서둘며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왔어요?》하고 영남이는 소리쳤습니다.

《어서 들어가 자라, 우린 이제 나무를 다 부리우고 들어 가마》하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토끼는 못 잡아 왔어요?》.

《이 녀석아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었더라》하고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뿌리…》하고 영남이는 속으로 생각하며 방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튿날도 할아버지는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영남이는 어제 할아버지가 해 온 나무에 고무 총 가다리를 만들 나무 가지가 없겠나 하고 감자 굴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너대의 그리 굵지 않는 통나무가 있을 뿐이였습니다.

(어제 왜 할아버진 나물 요거만 해 왔을가? 그런데 밤에 어머니와 둘이서 무슨 일을 그리 했을가?).

한참 통나무에 걸쳐 앉아 이런 생각을 하던 영남이는 손 바닥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아 할아버진 날 깜쪽 같이 속였어…어제 아마 산 곰 새끼 아니면 노루를 잡아 왔을거야, 그래서 밤에 감자 굴에 가둔게지……).

이렇게 생각하니 영남이는 어찌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디에 보이지 않나 하고 살피고는 감자 굴 문 쪽으로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때 옥란이가 《오빠 뭐야?》하고 따라 왔습니다.

《저리 가 무서운게다》하고 영남이는 그를 쫓아 버리려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싫어 난 무엇인가 꼭 볼래》 하고 딱 잘라맸습니다. 참 속이 타는 일이지요.

영남이는 하는 수 없이 그와 함께 감자 굴 문을 막은 짚단을 하나 하나 치우고 가마니 문을 비스듬히 열고 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화로에 담아 있는 것 같은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들이 보였고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앓음 소리 같기도 한 것이 들렸습니다.

영남이는 갑자기 겁이 치밀었습니다. 옥란이는 《엄마—》하고 뒤'걸음질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영남이는 떡 벋치고 서서 《그 속에 있는건 뭐야?》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안에서는 《음—》하고 잠고대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남이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사람이야? 귀신이야? 〈자연〉책에는 귀신이 없다고 써 있다! 흥 날 속일려구……손들고 나와!》.

이 때 뒤에서 《영남아!》하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머리를 휘 돌린 영남이는 얼굴이 새파래서 문턱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영남아 어서 이리 오너라!》.

이윽고 어머니는 영남이와 옥란이를 방안에 끌고 들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영남이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한 빨찌산 대원이 난데 없이 할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영남의 할아버지가 도시에서 살 때부터 잘 아는 젊은이였고 이 마을 소나무'골 부락에도 밤에 몇번 련락 내려온 일이 있는 동무였습니다.

빨찌산 대원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꼭 우리 부탁을 들어 주십시요, 오늘 공중전에서 적을 추격하여 큰 공을 세우고 부상 당한 중국 지원군 비행사 두명을 며칠간만 돌봐 주십시요. 이제 며칠 후면 지원군과 인민 군대가 진격해 나옵니다. 그 때까지만 수고해 주십시요. 사실 우리가 돌봐야 하는데 우리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나무'골에는 놈들이 이따금씩 올라 왔다가 내려 가군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할아버지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빨찌산에 련락하기로 약속하고 부상당한 중국 지원군 비행사들을 실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말을 하면 못 쓴다. 알았니?》.

그러자 영남이는 《알았어요》하고 대답했고 옥란이는 눈이 크다래서 말없이 머리만 끄덕였습니다.

＊　＊　＊

그 날 밤 영남이는 어머니를 좇라서 화로에 담을 불을 헌 바게트에 떠 가지고 감자 굴로 들어 갔습니다.

그는 중국 인민 지원군들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오래 전부터 기다려 오던 터이고 더군다나 지원군 비행사 아저씨를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막 기쁘기도 하고 한편 가슴이 두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화로에 불을 쏟아 놓은 영남이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이불을 허리에 감고 비스듬히 앉아 있는 비행사 아저씨의 얼굴을 쳐다 봤습니다.

비행사 아저씨는 방긋 웃어 보이며

《애야 너는 이 집 애니?》하고 조선 말로 물었습니다.

영남이는 이 아저씨가 조선 말을 하는데 더욱 놀라며

《그래요. 그런데 아저씬 조선 사람인가요?》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행사 아저씨는 다시 웃어 보이며 정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중국 사람이다. 집이 동북 길림성에 있다. 그리구 어릴 때에는 조선 회령에서 살았구…너의 아버지나 어머니들 처럼 나두 일본놈들 밑에서 여간 고생한게 아니란다. 그런데 새로운 강도 미국놈들이 너의 나라에 기여 들었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행사의 얼굴은 화로' 불에 붉게

타올랐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를 뭐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러자 비행사는 우스개를 피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 참 우린 통성하는걸 그만 잊었군, 난 류 동무라고 부르고 저 동문 팽 동무라고 부르면 돼》.

《전 영남이라고 불러요, 저의 아버진 땅크 중대장이야요》.

《그래! 영남아 귀여운 친구야 어서불이나 같이 쪼이자》.

영남이는 자기의 조그마한 손을 류 아저씨의 크다란 손과 가즈런히 하고 불을 쪼이며

《아저씬 미국놈 비행길 몇대나 떨구었어요?》하고 물었습니다.

《한 서너대 떨궜지……》.

《야! 참 잘 싸웠구만요. 그런데 아저씨 어떻게 하면 비행사가 될수 있을가요?》.

《비행사가 되구 싶어?》.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영남이는 그의 얼굴을 똑 바로 쳐다 보며 물었습니다.

류 아저씨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층 6층의 높은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든든히 다져야 하는 것처럼 보다 높고 훌륭하게 날 수 있는 비행사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자기 몸을 튼튼히 하고 국어, 산수, 지리 할 것 없이 모든 공부를 다 잘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옆에 누워서 잠자고 있던 팽 아저씨가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팽 동무 자 우리 꼬마 수리개와 인사하게》하고 류 아저씨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자 팽 아저씨는

《오——》하고는 다음은 알지 못할 중국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며 영남의 손을 꽉 쥐여 주었습니다.

영남이는 이 지원군 아저씨들이 어찌나 마음에 들었던지 언제까지나 부대에 돌아가지 말고 자기 집에 남아 있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옥란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란이는 영남이와는 달리 팽 동무를 더 따랐습니다. 그에게는 처음부터 이 팽 동무라는 이름이 아주 정답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팽 아저씨가 상처 때문에 몹시 괴로와하는 것 같고 게다가 조선 말을 한 마디도 모르니 몹시 안타까운 것이였습니다.

이리하여 영남이와 옥란이는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 두 지원군 아저씨를 정성껏 돌봐 주었습니다.

＊　＊　＊

이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는 갑자기 무서운 위험이 닥쳐 왔습니다.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원쑤놈들이 이 곳에 부상 당한 지원군 비행사들이 숨어 있다는 냄새를 맡고 수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놈들은 어른들을 모조리 한데 모아 놓고 사방에 총 권 놈들이 삥 둘러 서서 비행사를 내 놓으라고 울러댔습니다.

영남이는 집에서 엉엉 울고 있는 옥란이를 달래 놓고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갇혀 있는 곳으로 와 봤습니다.

영남이를 보자 할아버지는 자기에게 다가 오라고 보초 몰래 손질했습니다.

영남이는 훌쩍훌쩍 우는 체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쌍한 손자 녀석아》하면서 그의 손을 꼭 쥐였습니다.

순간 영남이는 자기 손바닥에 무슨 종이 쪼각이 쥐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종이 쪽지를 풀어 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남아 참나무' 골로 한참 올라 가면 길을 가로 막고 썩은 참나무가 쓰러져 있다. 그 나무에 올라서 모자를 벗어 신발에 묻은 눈을 각각 다섯번씩 털어라 그러면 누가 나타날테니 그에게 이 곳 사정을 이야기해라》.

영남이는 솜 외투를 든든히 입고 신발끈을 꽁꽁 졸라 맨 다음 골짜기로 올라 갔습니다. 그는 도중에서 《국군》 두명과 맞다 들었으나 토끼 올 가미 놓은 것 보러 간다고 얼려 넘기고 지나 갔습니다. 영남이는 마을이 보이지 않자 주먹을 부르쥐고 뛰였습니다. 삽시간에 그의 온 몸은 땀 투

성이가 되였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범이나 승냥이가 지나간 크다란 발자국들을 힐끔힐끔 보며 뛰였습니다. 여늬 때 같으면 그가 어찌 이런 깊은 골짜기를 혼자 뛰여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영남이에게는 겁 대신 류 아저씨와 팽 아저씨들이 어떻게 됐을가 하는 생각 뿐이 였습니다.

이윽고 영남이는 길을 막고 쓰러진 썩은 참나무가 있는 데까지 다달았습니다. 그는 참나무에 뛰여 올라가 할아버지가 시키던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저 쪽 산 기슭 눈에 덮인 다래 넝쿨 속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뛰여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영남이에게 엄하게 물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애야, 누가 널 여기로 정탐 보내더냐?》.

《빨찌산 아저씨! 난 그런 물음에 대답할 짬이 없어요. 우리 집에 감춰둔 지원군 아저씨…놈들이 집집을 다 뒤져요…》.

영남이는 숨이 턱에 닿아 울상이 되여 이렇게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빨찌산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알만하다. 수고했다》하고 말했습니다.

영남이가 떠난 후 그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놈들은 온돌장을 뜯기도 하고 천정을 허물기도 하면서 조사했습니다. 옥란이는 겁에 질려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옥란이는 한참 울다가 손가락 새로 내다 보니 놈들이 감자 굴 쪽으로 몰려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놈이 감자 굴 문을 덮은 짚단을 멀리로 힁 내던졌습니다.

옥란이는 눈을 감고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아이구 어떻거나, 할아버지… 엄마 아이구 저걸…》.

이 때 난데 없는 자동총 소리가 뚜루루…울리더니 감자 굴 옆에 모여 섰던 놈들이 푹푹 앞으로 거꾸러졌습니다.

영남의 련락을 받고 빨찌산들이 쳐 내려 왔던 것입니다.

놈들은 불의의 습격에 무리 죽음을 당하고 마을에서 뿔뿔이 뺑소니를 쳤습니다.

영남의 할아버지가 집으로 뛰여 왔을 때 영남이는 집 마당에서 빨찌산 대대장 옆에 의젓히 서 있는 것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감격에 넘쳐 영남에게 뛰여와 그를 꽉 끌어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남아 얼마나 수고했니》.

＊ ＊ ＊

마을이 해방되자 류 아저씨와 팽 아저씨는 감자 굴에서 따뜻한 온돌 방으로 옮겨와 영남이네와 한 식구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영남이와 옥란이는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차 작별이 닥쳐 왔습니다.

인민군과 지원군의 진격에 의하여 도시가 해방되자 지원군 항공대 지휘관이 두

대의 짚차를 가지고 자기 비행사들을 데리러 왔던 것입니다.

작별이란 언제나 쓸쓸한 것입니다.

옥란이는 팽 아저씨와 갈라지는 것이 슬퍼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류 아저씨는 짚차에 오르기 전에 영남의 어깨를 힘있게 쥐여 흔들며 말했습니다. 《자, 나의 귀여운 꼬마 수리개야 잘 있어라!》.

영남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아저씨 혹시 다시 우리 마을 우로 날아 가게 되면 편지라도 떨구고 가요》하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너무 빨라서 그건 힘들어, 그대신 날개를 힘껏 저으며 날아 가지 그러면 난줄 알아라…》.

이렇게 갈라진 후 영남이와 옥란이는 다시 학교에 다녔습니다. 영남이는 비행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류 아저씨의 말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비행기 엔징 소리만 나면 밖으로 뛰여 나갔습니다. 그러나 날개를 젓고 지나가는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영남이는 《내가 최우등할 때에야 류 아저씨가 날아 올게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석달째 잡히는 어느 날이였습니다. 갑자기 들리는 비행기 엔징 소리에 그들은 밖으로 뛰여 나갔습니다. 하늘에서 한 개의 《제비》 편대가 날아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의 두 비행기가 날개를 힘있게 저으며 이 쪽으로 내려 오고 있었습니다.

《류 아저씨 비행기다!》.

《야, 팽 아저씨!》.

《만세!》.

《만세!》.

그 바람에 할아버지와 어머니도 뛰여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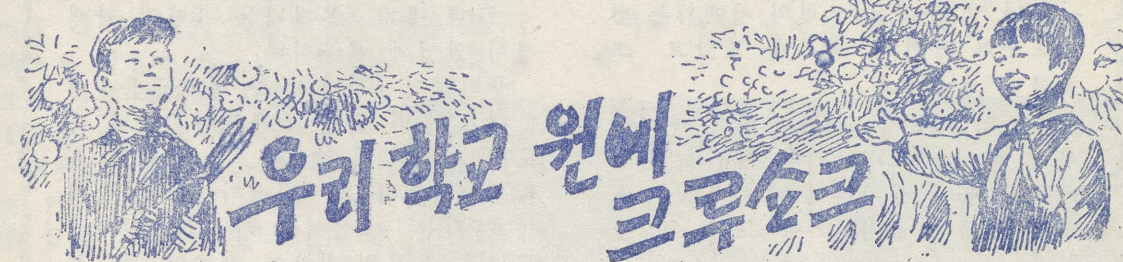
영남이와 옥란이는

《우리 류 아저씨 잘 싸우시요》.

《팽 아저씨 잘 가세요!》하고 손을 저으며 웨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눈 앞이 글썽하여 《젊은이들 잘 날으게》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여 오르는 푸른 하늘 아득히 날아 올라 가면서 은빛 날개를 끝없이 빤짝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쪽을 손질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꼬마 수리개들아 어서 날아 올라라 어서 날아 올라라!》.

우리 나라는 과수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지난 날 우리는 동소 농업 협동 조합 견학을 통하여 특히 우리 고향은 과수 재배에 좋은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해 가을부터 우리 학교에는 과수 재배에 취미를 갖고 있는 39명의 동무들로 원예 크루쇼크가 조직되였습니다.

크루쇼크에서는 작년 가을에 한 두환 선생님의 지도 밑에 협동 조합에서 3년생 과수 나무 10 그루를 옮겨다 심고 관찰하며 재배법을 배워 왔습니다.

한편 지난 해 가을 실습지에는 매지 씨를 심고 앞으로 접하는 법을 실지 실습하기 위하여 1,500본의 묘목도 길러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원예 실습지를 가꾸며 원예 기술을 배워 나가기에 힘쓰고 있을 때 마침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키며 외화를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과수 면적 10만 정보를 늘굴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형님들은 모두 황무지를 일쿠며 야산을 개간하는 일에 일떠 나섰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얼마 전부터는 이 일을 도와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학 첫날부터 우리는 방과후 시간을 타서 학교 뒤'산에 사과 나무와 밤 나무를 심기 위하여 개간하는 일에 나선 형님들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 방학 동안에는 복숭아, 추리, 살구 씨 등을 2Kg나 모았고 또 지금은 사과 배 씨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원예 크루쇼크에서는 우리 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래년까지 우리들의 힘으로 과수 나무 1,500그루를 심고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열매들을 얻을 수 있도록 재배할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동무들도 이에 모두 찬성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학교림 5정보와 학교 주변 3정보에 심을 묘목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실습지에서 기른 묘목에 사과 나무를 접하여 마을 민청원 형님들이 만드는 청년 과수원에 500여본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아버지, 형님들을 도우며 학교 원예 실습지도 훌륭히 꾸려 나가기에 힘쓴다면 몇해 후의 우리 고향과 학교는 보다 아름답고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될 것입니다.

함남 인흥 제5 중학교
원예 크루쇼크원 리 완규

우리는 쏘련 삐오네르들의 모범을 배우고 있다

모쓰크바 쨔리찌노요 레닌 14중 학교 삐오네르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부터 우리의 친선은 더욱 두터워져 갔다.

지난 날 우리는 쏘련의 친애하는 벗들로부터 여러번 편지를 받았고 또 회답도 보냈었다.

그들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그들이 삐오네르라는 이름을 얼마나 영예롭게 생각하며 삐오네르 생활에 어떻게 충실하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한 번은 나에게 《이라》동무 한테서 이런 편지가 왔다.

《사랑하는 춘자 동무! 우리는 언제나 레닌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학교의 영예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레닌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배우며 레닌 할아버지의 훌륭한 정신을 본받으려는 우리들은 학습에서나 삐오네르 생활에서 조금도 게을리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답니다. 유달리 독서에 취미를 갖고 있는 나는 짬짬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훌륭한 주인공들의 보범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라》동무는 자기는 장차 고리끼 선생처럼 훌륭한 작가가 될 것을 희망한다는 것과 자기 학급에 있은 재미 있는 이야기도 전했었다.

학기말을 앞두고 모두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서로 어떻게 도왔으며 공부했는가를, 그리고 지난 학기에 자기 학급에는 한 사람의 락제생도 없었다는 것을 자랑했다.

나는 이 편지를 동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참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 때 우리 분단에는 2명의 락제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1학년에 갓 진학했을 때만해도 우리 분단 동무들의 수업 태도는 그리 좋지 않았다. 그 때에도 우리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위쨔 말레예브》라는 소설책을 가지고 이야기 모임을 가지고 벽보도 만들어 동무들이 자기의 잘못을 느끼도록 했었다.

계속 우리는 《조야와 수라》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 《학창 시절》 《빠블리끄 모로조브》 등을 가지고 읽은 책 이야기 모임도 가졌었다. 우리 동무들은 이야기 모임에서 자기들이 읽은 책의 주인공들처럼 모두 용감하며 조국을 사랑할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지난 5월 19일 삐오네르 단체의 창건일을 맞으며 우리는 모쓰크바 쨔리찌노요 레닌 14중 학교 삐오네르 동무들과 조야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삐오네르 단체에서 자란 빠블리끄 모로조브와 조야처럼 훌륭히 자라도록 힘쓰고 있다고——

앞으로도 우리는 쏘련 삐오네르들과 친선을 더욱 굳게 맺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겠다.

평양 제1 녀자 고급
중학교 대(초급반)
제5 분단 위원장
김 춘 자

미제 침략자들은 물러가라!

날마다 미군은 남반부 인민들을 죽이고 있다.

우리는 어제 군산 비행장 부근에서 미군 헤일러 외 1명이 18세에 난 조선 처녀 김 영이와 17세에 난 강 금선 두 처녀에게 총질했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오늘은 서울 한 복판에서 미군이 지나 가는 두 청년에게 칼질을 해서 한 청년의 가슴을 찔렀고 다른 청년의 배를 쨌다는 분노에 찬 보도를 듣는다.

어찌 그 뿐이랴! 피에 굶주린 이 두 발 가진 짐승들은 차를 몰고 가다가도 길'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깔아 죽이고 있으며 소꿉놀이 하는 갓난 어린이도 무턱대고 쏘아 죽이고 있다.

이 얼마나 악독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인가!

미제는 남반부를 강점한 후 12년간 그 어느 하루도 남녘 땅에서 인민들과 어린애들을 죽이지 않은 날이란 없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오늘 세계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있다.

미제 침략 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이 불행과 고통은 계속 늘어만 간다.

그러므로 전체 조선 인민들은 웨친다.

미제 침략 군매는 조선 땅에서 물러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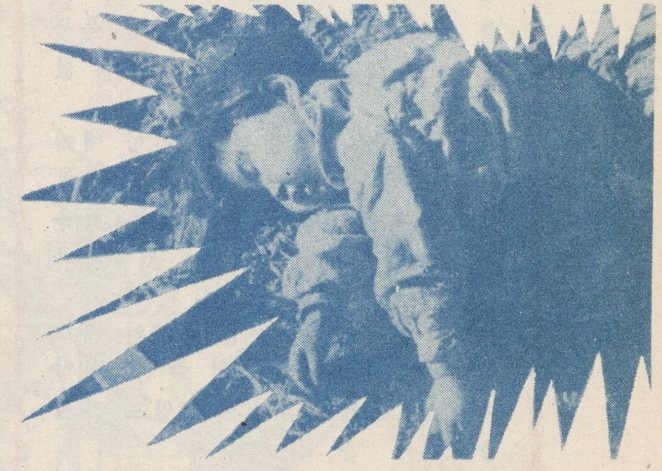



사진 (상) 미국놈들은 조선 인민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있다.
(중) 미군의 총에 맞아 쓸어진 어린 애의 비참한 주검.
(하) 미군의 총에 맞아 죽은 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이.

우리고향 농민들의 투쟁 이야기

사랑하는 고향의 자연을 관찰하며 향토사를 배워 나간다는 것은 여간 흥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날 우리 학교 대 력사 및 지리 크루쇼크에서는 우리들이 나서 자란 룡흥강반의 어제와 오늘을 연구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들을 조직해 왔습니다. 누구나 우리 향토 연구실에 들어 서면 먼저 눈을 돌리게 되는 17개의 투쟁사와 전설집 그리고 130 여 종의 력사 유물들은 우리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 일성 원수의 항일 유격 투쟁사와 함께 우리 향토사를 찬란히 빛내인 영흥 농민 폭동은 우리 나라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26년전 바로 이맘 때에 있은 우리 고향 농민들의 투쟁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자랑스러운 홰'불》이라는 벽 신문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그 때 농민 폭동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였던 허 득수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야기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고향의 농민들이 과거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이야기를 여기에 자랑하렵니다.

우리 나라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는 우리 고향 농민들에게도 해마다 헐벗음과 굶주림 밖에 더해 주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토지를 개량한다는 허울 좋은 구실로 수리 조합을 세우고 소작료 우에 또 수리 조합비까지 받아 갔습니다.

강도적인 여러 가지 세금과 회비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농민들에게는 또 이런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노구찌》놈은 흥남에 비료 공장을 짓기 전에 우리 고향에 와서 영고면에 공장을 앉힌다면서 한 평에 50전 내지 1원 씩 하는 토지를 1전 5리로 하여 강제로 빼앗고 소작권을 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놈들은 수력 발전소 저수지를 만든다고 신흥 광대 장'거리에 있는 300 여 호의 농민들을 강제로 철거시켜 류랑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서도 제일 기름진 땅은 《사사끼》란 왜놈이 독차지하고 있어 농민들은 그 밑에서 소작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넓은 벌을 낀 우리 고향 땅의 임자란 몇 놈되지 않는 지주였습니다. 해마다 땅 없는 농민들은 지주에게서 땅을 얻어선 봄내 여름내 피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도 소작료니 뭐니 하고 거의 다 빼앗기고 나면 된장 뎅이에 멀건 죽물 밖에 차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농민들의 아들 딸이야 학교가 다 뭡니까! 그러나 일제의 주구와 지주놈들은 밤낮 놀기만 해도 호강을 부리며 그의 자식들은 학교도 마음 대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놈들의 억압과 착취는 심해가고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해 갔었습니다. 농민들은 차차 눈을 뜨고 세상 형편을 살피며 우리의 원쑤가 누구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우리 나라 각 곳에서는 일제와 자본가, 지주를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파업과 농민 폭동이 빈번히 일어나군 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도 로동 조합의 지도 밑에 영흥 《야마시다》 흑연 광산 로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였는데 그 때 농민들은 일제와 자본가를 반대하여 싸우는 로동자들을 도와 식량과 동정금도 보냈었습니다. 로동 운동의 영향을 받은 우리 고향 농민들은 소작료를 낮추고 종자, 비료 대를 지주들이 부담하며 무상 로동 금지 등을 내 걸고 싸울 것을 결의해 나섰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고향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11개의 면에 지부를 두고 129개의 반에 3만 여 명의 애국적인 농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친 농민 조합이 조직되게 되였습니다. 밤마다 마을에서는 조합 간부들이 나와서 비밀리에 일제를 반대하는 모임을 가졌고 야학들에서는 우리 나라 글을 가르쳤습니다.

1931년 10월 초에 있은 일입니다.

이 날 밤에도 연풍리 (지금은 인흥군 중동리) 마을의 다 쓰러져 가는 신명 학원 (사립 학교) 교실에서는 야학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영흥군 농조 인흥면 지부 책임자인 리 택종 형님은 가물거리는 등잔'불 밑에서 《사회주의 대의》라는 책을 펼쳐 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로씨야에서의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택종 형님의 이야기에 야학생들이 뎐신 머리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왕장 주재소 《야야마》 순사 부장놈과 그의 앞잡이 악질 지주인 김 인선 구장놈이 눈을 부라리며 뛰여 들었습니다. 순사 부장놈은 일제의 주구 인선 구장놈을 통하여 야학에서 공산주의를 선전한다는 냄새를 맡았던 것입니다.

《누가 이따위 야학을 하라구 했어, 잉?》

이 때부터 야학을 폐지 당한 연풍리 형님들은 우선 김 인선 구장놈을 처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0월 15일 동틀 무렵이였습니다. 붉은 떠를 맨 마을 형님들은 두 주먹을 높이 쳐들고 일시에 구장놈네 집으로 밀려 들어 갔습니다.

별안간에 봉변을 당한 김 인선이라는 구장놈은 인차 왕장 주재소에 구원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에 일제 경찰놈들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은 조금도 겁나하지 않고 맨 주먹으로라도 놈들과 싸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형님들은 신명 학원 운동장에 모여 의논한 후 무장한 경관놈들을 청룡'재 언덕에까지 끌고 가서 언덕을 등진 채 돌맹이와 낫 도끼 곤봉 등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놈들이 언덕에까지 이르렀을 때 형님들은 숲 속에서 《만세!》를 웨치며 놈들을 포위하고 일제히 돌맹이 벼락을 들씌웠습니다. 질겁한 놈들은 곧 도망치기 시작하고 형님들은 용감히 원쑤놈들을 뒤쫓았습

니다.

놈들은 쫓기면서도 마구 총질을 했습니다. 형님들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던 황 재보 형님은 날쌔게 뛰여《야야마》순사 부장놈의 골통을 곤봉으로 힘 있게 내려 쳤습니다. 그러나 놈은 홱 돌아 서면서 황 재보 형님의 가슴에 총을 쏘았습니다.

18세의 소년 황 재보 형님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은 일시에 영흥 벌에 퍼졌습니다. 일제 침략자들과 지주놈들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은 드디여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영흥 농민 조합 본부는 화산처럼 일어나는 농민들을 묶어 세워 폭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채 수철, 양 종원, 박 대혁, 우 일훈 형님들에 의하여 폭동 준비는 물샐틈 없이 되였습니다.

청년 별동대와 소년부에서는 폭동 준비를 위한 련락 임무를 맡았습니다.

소년들은 왜놈들을 깜쪽 같이 속여 가며 련락하는 일을 훌륭히 도와 드렸습니다.

10월 21일! 바람마저 고요히 잠든 밤거리에는 갑자기 북소리가 둥둥 나더니 왕장 주재소로 이르는 신작로에 난데 없는 홰'불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끝 없이 늘ㅇ선 이 홰'불은 한 줄로 렬을 지어 왕장 주재소로 마구 밀려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또 마장읍 면 사무소와 주재소에도 홰'불을 든 대렬이 물밀듯이 밀려 들며 《일제를 타도하라!》,《조선 독립 만세!》,《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고 웨치는 구호 소리가 하늘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왕장 주재소 정문에 뛰여 든 리 택종 형님과 청년 별동대원들은 경찰놈들을 둘러 메치고 총을 빼앗았습니다. 군중들의 만세 소리를 들으며 붉은 기'발을 높이든 택종 형님은 날쌔게 빠져서 왕장 주재소 꼭대기에 붉은 기'발을 꽂았습니다.

홰'불로 하여 휘황찬 밤거리에 붉은 기가 우리 고장 농민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 힘차게 나붓기였습니다.

질겁한 놈들은 여기저기에서 마구 총질을 하며 홰'불을 든 농민들을 위협했습니다.

폭동에서 리 택종 형님을 비롯한 수 많은 애국자들이 놈들에게 잡히였습니다.

그러나 놈들이 제 아무리 날치여도 이 땅에 깊이 뿌리 박은 농민들의 애국심을 영원히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투쟁은 우리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히였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고향 농민들의 투쟁은 오래'동안 줄기차게 계속되였습니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한 8. 15 해방과 함께 우리 고향 농민들의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친일파, 지주놈들은 우리 땅에서 영원히 물러 가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차례졌습니다.

룡흥강변을 끼고 넓게 펼쳐진 기름진 벌에는 해마다 황금 파도 넘실거리며 협동의 노래 소리 메아리칩니다.

장차 우리는 오늘을 위해 자랑스러운 홰'불을 들고 피 흘리며 용감히 싸운 우리 고향 농민들의 참된 뜻을 이어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향을 꾸려 나가는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도록 열심히 배워 나갈 것입니다.

함남 영흥 제1 고급 중학교 대
한 덕 화

동화

총각 용바우

남 응 손

옛적 어느 마을에 용 바우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본래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몹시 가난했어요.

해마다 농사를 짓기는 지었으나 추수해들인 가을이라 해도 곡식들은 거의 다 량반들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에 죽을 쑤어 먹었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산 나물을 뜯어 먹으면서 겨우 살아 왔지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부모는 늙어서 병이 들게 되였어요.

무슨 일에나 부지런하고 마음이 착한 용 바우는 부모의 병을 고쳐 드리려고 모진 애를 썼으나 그의 지성도 물거품이 되고 부모는 돌아 가셨답니다.

그런데 부모에겐 생전 소원이 있었어요. 그 것은 나이 찬 아들을 어떻거면 장가를 보낼가 하는 것이였지요. ·그러나 종내 며느리를 보지 못하고 말았답니다.

그래 부모들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없는 살림이고 보니 너를 장가두 못 들이구 죽는 것이 제일 슬프구나. 야속한 세상이다. 후—》하고 한숨을 지으며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외웠답니다. 이렇게 용 바우 부모들은 자기들이 병들어 죽는 것은 섧지 않으나 아들을 장가도 못 보내고 죽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유언했어요.

용 바우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런데다 마음도 비단'결 같이 고왔답니다.

그는 부모 생전에 따뜻한 진지 한 그릇 대접 못한 것이 언제나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았지요.

어느 따뜻한 봄 날이였습니다. 먼 산에는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끼고 강'가의 버들에는 푸른 물이 활짝 올랐습니다.

해마다 이런 봄이면 부모에 대한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답니다.

용 바우가 사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큰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물을 바라보면 그의 마음은 언제나 시원해지는 것이였어요. 용 바우는 일을 나왔다 집으로 들어 오는 길이면 꼭 이 강기슭에서 쉬여 갔답니다. 어쩐 일인지 용 바우는 이 강을 떠나서는 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만큼 정이 든 셈이지요.

산에서 나무를 해 지고 내려 오던 용 바우는 오늘도 여늬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강'가에서 쉬였습니다. 지게를 벗어 놓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촬촬 흐르는 푸른 강물을 바라 봤습니다. 하염없이 돌아 가신 부모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흐르는 강물판에서 물살이 분수처럼 치솟더니 번쩍하고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용 바우 앞으로 뛰여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 너무도 신기스럽고 그 잉어가 너무도 귀여워서 집에 가져다 독에 물을 채우고 넣어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매일 물을 갈아 채웠지요.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늘도 용바

우는 밭에 나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 서니 무럭무럭 김이 나는 난데 없는 흰 이밥과 이름 모를 반찬들이 밥상에 그득 차려져 있지 않겠어요. 그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배가 고픈 참이라 용 바우는 맛 있게 다 먹었습니다. 아마 용 바우가 이런 음식을 먹어 보기란 처음일거예요. 아직 본 일도 없는 그런 음식들이였으니까요. 이런 일은 다음 날도 계속되였답니다.

용 바우가 일을 하고 돌아 오면 의례히 맛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반찬도 한 두 가지가 아니였는데 그 것도 매일 매일 새 것으로 바뀌였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맛 좋은 음식을 차려 줄가?——

그는 너무도 궁금해서 하루는 일을 나갔다가 일찌기 돌아 와서 부엌 문 짬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 보던 용 바우는 그만 놀라 하마트면 뒤로 넘어질번 했어요.

어째 그랬는가구요?

글쎄 독에 넣어 둔 잉어가 쏜 살 같이 뛰여 나와 몇 번 곤두박질을 하더니 아주 아름다운 처녀로 변하지 않겠나요. 그리고는 재빠른 솜씨로 쌀을 일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였어요. 그래 용 바우는 황홀하여 마음을 든든히 먹고는 부엌 문을 와락 제끼고 들어 섰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아무런 놀랜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용 바우를 바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용 바우는 그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물어 보았습니다.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

그랬더니 처녀는 빙그시 웃으며

《나는 룡궁에서 당신의 안해가 되기 위해 온 사람이예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였어요.

이 날부터 늙은 총각 용 바우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그러나 용 바우에게는 뜻하지 않은 모진 바람이 휘몰아쳐 왔어요. 늙은 총각 용 바우의 소문은 방방곡곡에 샅샅이 펴져 이 나라 욕심 많은 임금에게까지 가게 됐습니다.

임금은 용모가 천하 일색으로 아름답고 기가 막히는 음식 료리 솜씨가 있다는 용 바우의 안해를 탐내여 그에게 사도를 보내 온 것입니다.

왕의 분부는 이러한 것이였습니다.

—왕과 용 바우가 장기를 놀아 왕이 이기면 용 바우의 안해를 왕궁으로 데려 가고 용 바우가 이기면 왕의 재산 절반을 나눠 주겠노라—

그래 장기라곤 생전 두어 본 일이 없는 용 바우는 왕의 명령을 거역도 못할 일이고 하여 대단히 걱정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 눈치를 챈 안해가 《장기를 놀 때 이 것을 장기판에 굴리시요》하고 은빛 나는 조그만 구슬을 한 알 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용 바우는 말 멱도 모르는 사람이라 자신을 갖지 못하고 약속한 날 왕과 장기판에 마주 앉게 되였습니다.

용 바우의 가슴은 방망이질했습니다.

용 바우는 왕 하는 대로 말을 주르시 붙이고 나서 장기가 시작되자 곧 가슴에 품고 온 구슬을 장기판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슬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 말들이 갈 방향을 가리켜 돌돌 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 구슬이 구는 대로 장기 말들을 터턱 옮겨 놓았답니다.

아닌게 아니라 얼마 못 가서 왕은 통장에 들어 입 맛을 쩍쩍 다시며 하는 수 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장기를 이기고 난 용 바우는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으리만큼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장기에 진 왕은 씩씩거리며 황소성이 났습니다.

왕은 용 바우를 어떻게든 이겨 보려고 다시 시비를 청해 왔습니다.

《이 번엔 내 군사하고 너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의 마음 대로 하기로 하자》하고 얼토당토 않은 내기를 걸어 왔습니다.

글쎄 본래 용 바우의 힘이 장사이기 때문에 왕 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그 많은 군사를 이겨 낸다는 수가

있겠어요. 용 바우는 집에 돌아 와서 끙끙 앓고 있었지요.

이제는 하는 수 없이 안해를 빼앗길 생각을 하니 너무도 기가 막혀 앞이 캄캄했습니다.

드디여 싸울 날은 다달아 왔습니다. 용 바우가 시름 없이 집을 나서는데 안해가 부르는 것이예요. 용 바우는 안해가 마지막 리별을 하자는 것일가 생각하면서 돌아 섰습니다. 그런데 안해는 생전 처음 보는 붉은 병과 푸른 병 두 병을 치마 속에서 내 주면서 위급할 때 던지라고 하지 않겠어요.

용 바우는 두 병을 받아 들고 시름 없이 터벅터벅 왕궁으로 갔습니다.

넓고넓은 마당에는 왕이 거느린 병사들이 으리으리하게 군마를 타고 늘어 섰습니다. 그들은 시퍼렇게 날을 세운 창들을 높이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용 바우도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되자 있는 힘을 다 낼 것을 굳게 다짐하고 두 발을 든든히 뻗치고 섰습니다.

마당 둘레에는 옳지 않은 것을 하는 왕을 노려 보는 구경'군 농민들로 꽉 찼습니다.

이윽고 왕은 의기 양양하여 말 우에서 창을 번쩍 들면서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저 놈 용 바우를 쓰러 눕혀라!》.

그러자 왕의 병사들은 일재히 용 바우를 향하여 달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용 바우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일어 났습니다. 이 순간 용 바우의 눈 앞에는 문듯 안해가 나타났습니다. 용 바우는 재빠르게 허리에 차고 온 붉은 병을 앞으로 던지며 맞받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붉은 병

이 《쾅》하고 터지더니 웬 일인가요?

구경 왔던 농민들이 한 사람 빠짐 없이 모두 창을 멘 씩씩한 군대가 되여 용 바우를 따라 왕의 병사들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와!》 함성을 올리며 앞으로 내 달았습니다.

용 바우는 더욱 기운이 났습니다. 왕의 병사뿐만 아니라 왕까지 쳐 없애야 겠다고 이를 갈면서 푸른 병을 마주 던졌습니다.

《팡!》.

하고 다음 푸른 병이 터지자 이번엔 수 많은 군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용 바우는 날쌔게 말을 잡아 탔습니다. 군대가 된 농민들도 모두 군마를 타고 름름하게 맞받아 나갔습니다.

싸움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의 병사들은 용감한 용 바우와 그의 군대들을 당해 내지 못했습니다. 어림도 없었지요. 그래 어떤 놈은 도망치고 어떤 놈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그 많은 농민 군대를 이겨 낼 수 없었으니까요.

드디여 기세를 부리고 호화를 누리던 왕도 이마에 손을 얹고 한숨을 짓더니 말에서 맥 없이 내려 펄썩 땅바닥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시요》.

하고 왕은 벌벌 떨면서 용 바우에게 빌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사는 세상은 다시 없게 하겠다》.

용 바우는 소리를 지르며 왕의 목을 시퍼런 창으로 찔렀습니다.

왕의 목에서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 먹은 기름진 피가 나왔습니다.

*

백성들은 용 바우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안해를 왕후로 모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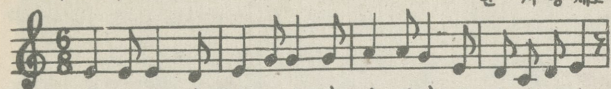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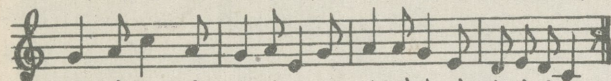
왕이 된 용 바우는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가　을》……………………김 창규 촬영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칠성 리 원우 리 동무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7년 10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7년 10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7년 제 10 호 총(97호)
발행소 민주 청년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634 값 25 원 80,000부 발행

유 희 곡

2. 우리 우리 동무들아 기쁜 날을 만났으니
   우리 우리 즐거웁게 발구르며 놀아 보자

3. 우리 우리 동무들아 기쁜 날을 만났으니
   우리 우리 즐거웁게 춤을 추며 노래 하자

4. 우리 우리 동무들아 기쁜 날을 만났으니
   어깨 겯고 돌러 서서 우리 목적 말해 보자

5. 나는 나는 될터이다 교육가가 될터이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교육가가 될터이다

6. 소수 민족 문맹자를 모다 모다 퇴치하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교육가가 될터이다

7. 나는 나는 될터이다 의학가가 될터이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의학가가 될터어다

8. 먹지 못해 입지 못해 병든 자를 고쳐 내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의학가가 될터이다

9. 나는 나는 될터이다 음악가가 될터이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음악가가 될터이다

10. 착취 당코 압박 받던 그 정신을 시쳐 내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음악가가 될터이다

11. 나는 나는 될터이다 문학가가 될터이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문학가가 될터이다

12.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그 형상을 그려 내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문학가가 될터이다

13. 나는 나는 될터이다 군학가가 될터이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군학가가 될터이다

14. 군벌 지주 자본가를 무장 들고 몰아 내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군학가가 될터이다

15. 나는 나는 될터이다 공학가가 될터이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공학가가 될터이다

16. 새 기계를 만들어서 사회 생산 높이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공학가가 될터이다

17. 나는 나는 될터이다 녀자 대표가 될터이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녀자 대표가 될터이다

18. 여때까지 압박 받던 녀자 해방 찾으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녀자 대표가 될터이다

19. 나는 나는 될터이다 삐오네르가 될터이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삐오네르가 될터이다

20. 자본 사회 타파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삐오네르가 될터이다

21. 우리 우리 동무들아 기쁜 날을 만났으니
    우리 우리 즐거웁게 붉은 기 메고 나가 보자

(이 노래는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 어린 투사들이 부르던 노래이다)